

국가조찬기도회 제4대 신임회장 박성철장으로 취임



(사)대한민국 국가조찬기도회는 2월 24일 오전 7시 여의도 CCMM빌딩 우봉홀에서 '국가의 번영과 나라경제를 위한 국가조찬기도회 및 제4대 신·구회장 이·취임식'을 갖는 감사예배를 국회의원 및 교계 지도자 300명이 참석한 가운데 하나님께 드렸다.

이날 김장환목사(극동방송 이사장)는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사람'란 제하의 말씀을 통해 "국가의 축복의 통로는 오직 기도로 국가 지도자를 바로 세우는 기도회가 되길 바란다"고 적시했다.

또한 신임회장 박성철 장로는 "먼저 겸손

히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회, 국가지도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기도회, 국내외 지회 확대를 위한 기도회를 세우는 기도회가 되도록 헌신을 다짐"하는 축사를, 이임하는 직전회장 김영진 장로(국회의원은 이임사에서 국가조찬기도회가 국가의 번영과 발전을 위한 한국기독교 영적자산이 되길 기도하며 헌신을 다짐했다.

이날 임신형 목사(한기총 대표회장), 길자연 목사(광복대 총장)가 축사와 축하를, 황우여 장로(국회조찬기도회장), 이상득 장로(국회조찬기도회 고문, 전 국회부의장) 등이 격려사와 권면에 나섰다.

이어 장현일 장로(국가조찬기도회 사무총장)는 국가조찬기도회 역사성과 안정성을 통해 국내외 지도자들을 초청, 온 국민이 연례적으로 참석하는 기도회가 될 수 있게 매년 6월 셋째 주 목요일 개최한다며, 2009년 6월 18일 제41회 국가조찬기도회를 갖겠다고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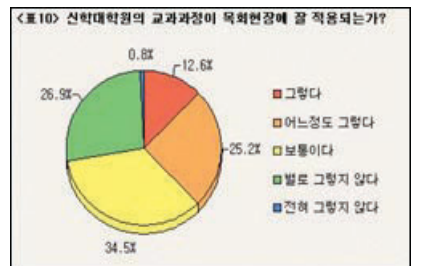
이날 국가조찬기도회 사회에 신용환 장로

(한국기독교실업인회 회장), 대표기도 이신웅 목사(신길교회), 성경봉독 정영숙권사(한국에스더구국기도회 회장), 노숙숙장로(국민일보 회장)의 '국가번영과 나라경제를 위해', 강성종장로(국회조찬기도회 총무)의 '국가조찬기도회와 이·취임 회장을 위해' 각각 특별기도를 맡았으며, 특별찬양에 '신원예배에셀생가탄'이 맡았다.

또한 국회의원 김기현(국회조찬기도회 총무), 이병석(한나라당기도회 회장), 이윤석, 임두성의원, 국가조찬기도회 증경회장 정근모 장로, 전 국무총리 서리 장상 목사, 노재동 은평구청장, 신영섭 마포구청장, 윤여표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오목교 합동신학대학원대학교 총장, 목창균 서울신학대학교 총장, 한규동 기독교한국침례회 총회장, 이만신 목사, 피종진 목사, 최건호 목사, 정병학 목사, 임동진 목사, CTS 기독교TV 사장 김경철 장로 등 국가조찬기도회 임원 및 교계 지도자가 한자리에 배석해 은혜로운 기도회가 됐다.

젊은 목회자들 "신학교 교육 이대로는 안 돼"

젊은 목회자들이 현행 신학교육에 대해 그다지 만족스럽지 못한 평가를 내리고 있으며, 향후 한국교회의 양적 성장에 대해서도 비판적인 전망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젊은 목회자들, 신학교육에 대해 만족스러워 하지 않아, 교회경신을 위한 목회자협의회(이하 교경협)는 지난달 19일에 개최했던 '젊은 목회자 포럼'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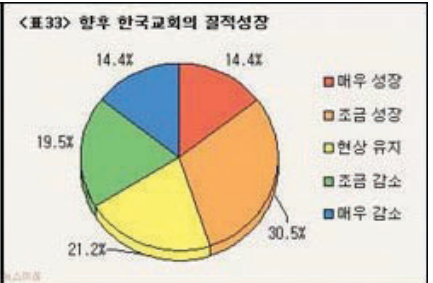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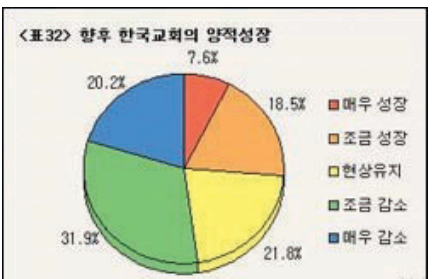
참석자 250명 중 124명이 응답한 이번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현행 신학교육에 만족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학대학원(이하 신대원)의 교과과정'이 목회 현장에 잘 적용되는가'란 질문에 응답자의 34.5%가 '보통'이라고 답했고, 26.9%가 '별로 그렇지 않다'고 답한 것이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응답자들은 '실교와 성경공부·신앙훈련·성경연구방법' 등 목회현장에 실제로 적용되는 교과과정의 수정·보

이박에도 응답자들은 현행 신학교육과 관련 관심이 집중돼야 할 사안으로 △교수 충원을 통한 과밀학급의 해소 및 교수대 학생 비율의 최소화, △학생 정원의 현실적 조정, △교수의 자율적 연구 및 강의 품위 조성을 통한 강의의 질적 향상 등을 지적했다.

또 응답자들은 한국교회의 미래에 대한 인식과 관련 양적 성장에는 비판적인 반면 질적 성장에는 낙관적이었으며, 300명 단위 이상의 목회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한국교회의 양적 성장에 대해서는 52%의 응답자가 '감소할 것'이라고 답했고, 성장할 것이라는 긍정적인 답변은 26%에 그쳤다. 또한 질적 성장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45%가 '성장할 것'이라고 답한 반면 감소한다는 답변은 34%였다.

최근 기독교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추세인 만큼, 젊은 목회자들은 한국교회에 양적으로 성장할 것이라는 기대보다는 이웃과 사회를 향한 교회의 역할이 부각되면서 질적 성장이 이뤄지리라 전망한 것으로 보인다.



▲자료처트 뉴스미션 제공

서울홀리클럽 사초홀리클럽 창립예배



서울홀리클럽 순회헌신예배 및 사초홀리클럽 창립을 위한 윤석진 교수 초청 음악회가 지난 달 15일 오후 2시 서울 강남구 삼성동 늘푸른교회(담임 박규용 목사) 그레이스 홀에서 진행됐다.

이날 (서울홀리클럽 대표회장) 최광열 장로 사회로 1부 예배가 시작되고, (세계기독교직장선교연합회 대표회장) 정세환 장로가 대표기도에 나섰으며, 성경봉독에 (한사랑지구촌 선교회 회장) 손갑임 선교사가, 늘푸른교회 아르셀 중창단의 찬양과 담임 박용규 목사가 "이 땅 고쳐주소서"라는 제하의 말씀을 선포했다.

이어 (쿰란출판사) 이형규 장로가 봉헌기도를, (서울홀리클럽 명예회장) 양인평 장로

가 등단, 서울홀리클럽 창립준비위원 명단을 발표하고, 합심기도에 들어가 교회와 나라를 위해 성결대학교 김영수 교수, 홀리클럽과 사초홀리클럽 창립을 위해 (임마누엘교회 / 대조영 작가) 유현종 안수집사 등이 나섰다.

또한 (홀리클럽연합회 대표회장) 전용대 장로가 환영사를, 국회의원 이혜운 의원, 고승덕 의원 등이 격려사를, (사초구청) 박성준 구청장이 축사를, (서울홀리클럽 총무) 임영수 안수집사가 인사와 광고를, (교구협의회 회장 / 강남제일교회) 권재만 목사 축도로 예배를 마쳤다. 이어 양인평 장로 사회로 2부 음악회가 진행되고, 아시아 3대 테너 윤석진 교수를 흥보대사로 위촉장을 전달했다.

노력한다.

내용: 기정회복 운동 / 결혼 예비학교 / 이혼 문제 상담소 운영 등 가정회복시켜서 이혼율을 낮추고, 청소년 범죄도 줄일 수 있도록 한다.

성직운동 / 우리가 일하고 있는 일터에서 일터 사도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여, 직장윤리와 노사간의 화합과 사랑의 실천운동을 전개한다.

내용: 부활절, 성탄절 직장 신우회 연합예배, 직장 인 수요 집회 등

성회운동 / 교회의 건전한 발전과 부흥을 위해 헌신한다.

내용: 안도제 전도운동 / 영·호남 한마을 대화 행사운동 / 사회정화를 위해 순선수행하며, 공의를 도모하며, 법을 준수한다.

내용: 사랑의 연탄보내기운동, 웃음치료, 음악치

료, 미술치료 등 치유를 통한 복음 전파 운동 / 깨끗한 거리 만들기 운동 / 범죄 예방 / 학교폭력 없애기 운동 / 음식물 안남기기 운동 / 독거노인 보일러 고쳐주기 운동(보일러 홀리클럽)

성국운동 / 나라를 사랑하고 겨례를 위하는 뜨거운 마음으로 봉사한다.

내용: 민들레 증보기도운동 / 구국기도회 / 주권행사운동(선참여도 높이기운동)

성세운동 / 인류의 화해와 평화를 위해 기여한다.

내용: 해외홀리클럽 창립 / LA, 시드니 성시대회 등

이상과 같이 홀리클럽의 7성 운동은 우리 삶을 통하여 복음을 전하는 총체적 복음운동으로 각 지역별로 복음화율을 높이고, 범죄율과 이혼율, 청소년 범죄율 등을 낮추고, 청결운동을 통하여 쓰레기 처리 비용절감,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는 데 내가 먼저 하자는 운동이다. 이러한 홀리클럽은 현재 국내 45 개지역(성시화운동본부 포함) 해외 13개 도시에 창립이 되어 있고 계속적으로 참여하는 지역이 늘어가고 있다. 서울홀리클럽은 대도시라는 특성을 살려 25개 각 구별로 홀리클럽을 창립하여 서울을 변화시키고자 기도하고 있다.

2008~2009년 소진우 목사 부흥성회 일정

한 해 동안도 기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신, 교회와 동역자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2008년

1월	1-3 수도산기도원(임영이원장) 7-10 엘리야수양관(양정석원장) 12 안양갈멜산금식기도원(임예진원장) 14-16 경강교회(백덕근목사) 21-23 울산삼산교회(정지복목사) 28-30 기도원햇빛교회(이강우목사)	5월	5-7 성도교회(이경석목사) 12-24 성지순례 26-29 갈멜산강화금식기도원(임예진원장)	9월	1-4 은누리복음회수양회(임기호총제) 8-10 관성수양관(방선원장) 13 안양갈멜산기도원(임예진원장) 22-25 교단 총회 29-10/1 인천경성교회(윤양표목사)
2월	4-8 구정주 간(선교지방문) 11-13 천홍수광교회(김기문목사) 18-21 이천영광교회(이인수목사) 25-27 장명중앙교회(박종현목사)	6월	2-5 감람산기도원(이국원원장) 9-11 성은교회(허동석목사) 13 안양갈멜산금식기도원 16-18 성심교회(한원종목사) 23-25 변동평화교회(한봉희목사) 30-7/2 화동교회(김계인목사)	10월	6-9 성지교회(김성종목사) 13-14 정기노회 14-16 시흥성교회(안진희목사) 20-22 성산중앙교회(정신일목사) 27-29 평택중앙교회(김국복목사)
3월	2-5 민락중앙교회(김명호목사) 6-29 봄철축복대신방 13 안양갈멜산기도원(임예진원장) 24-26 무선중앙교회(박영렬목사) 31-4/3 설립기념축복성회(유재명목사)	7월	7-10 한열산기도원(이영금원장) 14-17 중곡신학교여름세미나 21-24 천양의집(송년회원장) 28-30 수동교회(이승진목사) 31 안양갈멜산금식기도원(임예진원장)	11월	3-6 석창교회(박남인목사) 10-12 와정제일교회(우남호목사) 17-22 천보산기도원(우정제) 21 안양갈멜산금식기도원(임예진원장) 24-29 서광교회(박인덕목사)
4월	6-8 인천제일성결교회(장길선목사) 14-15 정기노회 18 임마누엘수양관(이수영원장) 20-23 서울성결교회(이종래목사) 28-30 영광교회(조외구목사) 24-26 북경왕정 한인교회(최진길목사)	8월	4-6 대양교회(김명섭목사) 18 안양갈멜산기도원(임예진원장) 18-21 천문기도원(최정숙) 22 한열산 24-30 특별심야부흥성회(예복교회)	12월	1-3 신광침례교회(조주행목사) 5 한열산기도원(이영금원장) 8-10 1. 마정성결교회(김달영목사) 12 2. 임마누엘수양관(이수영원장) 15-17 한영교회(임원길목사) 26-30 오봉서목사초청부흥성회

2009년

1월	3 안양갈멜산금식기도원(임예제원장) 5-8 일산금강교회(주정민목사) 12-14 홍산교회(김양섭목사) 19-21 갈릴리교회(오덕주목사) 26-30 필리핀선교집회	5월	4-6 신성교회(김정수목사) 10-13 봄철축복성회(예복교회) 18-30 북미지역 연합성회
2월	2-5 해방기도원(백재욱원장) 9-11 옥산성경결교회(박병정목사) 16-18 칠곡연합성회(김상호목사) 23-25 대전소망교회(조성봉목사)	6월	1-4 인천마가다락방기도원(박보영목사) 15-17 주영교회(여준석목사) 22-24 완도순복음교회(장정환목사) 29-1 외국교회(장보웅목사)
3월	축복대심방	7월	6-8 새영교회(이영근목사) 13-17 신학생여름집중세미나 20-22 산성교회(김장남목사) 27-30 임마누엘기도원(김순숙원장)
4월	6-8 목양교회(주하순목사) 13-14 정기노회 14-16 이루리교회(이재경목사) 20-23 남양주시기독교연합성회 27-29 광성교회(임대은목사)	8월	3-6 한열산기도원(이영금원장) 10-13 에바다응답기도원(최민숙원장) 17-20 천문기도원(최정숙원장) 23~ 2주 연속 심야특별대성회(예복교회)



강사 소진우 목사
☎.010-5267-1434

약 력

- 로고스 세계부흥선교회 부총재
- 열방부흥선교회 대표회장
- 극동방송 토크리스트
- 지저스타임즈 사장
- 예복교회 담임



대한예수교 장로회 예복교회
 YEBOK PRESBYTERIAN CHURCH

서울시 노원구 상계1동 1265번지
 전화 : 02-3391-9676 / 010-5267-1434

기독논단

성전을 매매하는 사람들

요즘 한국교회가 끝없이 추락해 가고 있다. 선교100년의 한국교회 모습은 처참하리만큼 일그러지고 말았다. 요즘 교계 신문과 기독교 인터넷 사이트에는 교회를 팔고 사는 성전매매 문제와 일부 목회자와 성도들로 인한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사건과 소식들로 기독교네트워크의 분노를 사고 있다. 은연중 행해지던 교회매매가 이제는 한국교회의 병폐중 하나로 아주 깊게 뿌리내리고 말았다. 교회관련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 성전매매, 교회 급매매, 기도원 매매등 1500~1600여개의 광고가 빼곡히 채워져 있다. 뿐만 아니라 각종 기독교 언론매체와 일간신문 등을 통해 나오는 교회매매는 날이 갈수록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교회 매물이 집중적으로 쏟아져 나오는 것은 우리 경제가 그만큼 어려운 탓도 있지만 교회간 판관 결벽 목회자가 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무작정 교회를 개척한 이유 때문이기도 하다. 일단 해보고 안되면 마는 식으로 시작한 개척이기에 쉽게 시작하고 안 되면 팔아 다른 곳에서 또 다시 시작하는 풍토가 만연하고 있기 때문에 날이 갈수록 점점 교회 매매가 성업을 이루게 되는 것이다. 이제에는 아예 교회전문 매매업자까지 등장하고 있다. 그들 역시 목회자의 신분이다. 자신의 개척한 교회를 □번 팔아 치우다보니 경험이 생겨 아예 교회전문 매매 브로커로 나선 것이다. 이 때문에 거북하고 신성해야 할 교회를 하나의 상품의 가치로만 여겨, 교회를 팔고 사는 목회자들은 시설이 좋다는 이유와 성도들을 조건으로 상당한 웃돈을 요구하고 흥정한 다.

결국 주님의 피 값으로 세워진 교회가 예수님께서 강하게 책망하신 '강도의 굴혈'이 되어버린 것이다. 심지어는 예배당 매매를 위해 가짜 교인들까지 동원하는 사기 행각까지도 서슴치 않고 벌어지고 있다.

영등포구에서 교회를 개척했던 A목사는 개척 후 자신이 만든 목회프로그램을 동원해 성도를 끌어 모았다. 그리고 얼마 후 상당한 웃돈을 붙여 교회를 매각했다. A목사에게는 2~3억 원의 수익이 남겨졌

다고 한다. A목사는 다시 장소를 조금 바꿔 또다시 교회를 개척했다. 이번에는 조금 크게 성전을 구입해 교회를 시작했고 그만큼 성도수가 많아졌다. 그는 또 교회를 팔아 4억여 원의 이익을 남겼다. 이렇게 A목사가 매매한 교회만 5곳이나 된다. 이 A목사는 오히려 어렵지만 한곳에서 꾸준히 목회하는 개척교회를 어리석다고 말한다.

좀 더 비양심적인 경우는 자신이 성도 수까지 계산해 매매한 교회 바로 옆에다가 다시 교회를 개척하고 원래 성도를 다시 끌어오는 경우다. 이로 인해 엄청난 피해를 당한 한 목사는 "100여명의 성도에 대해 소위 권리금이라는 명목으로 1억 원의 웃돈을 주고 교회를 매입했는데 불과 5백 미터 옆에 교회를 세워 성도를 빼앗아 갔다는 것이다.

참으로 기가 막힐 노릇이다. 하지만 어떤 수단 방법을 쓰든 돈만 있으면 꽤나 그럴듯한 이름 있는 단체와 기관에 자신의 이름을 올려 놓고 저명한 교계인사들을 배경으로 잘나가는 목회자 행세를 한다고 한다. 그러면서 기회만 있으면 딱 치는 대로 교회를 상대로 불의한 이익을 쟁긴다. 한 인터넷 사이트에는 이들의 행태를 고발하면서 맨 마지막에 강아지 한 마리를 올려놓았다. 네티즌들은 이를 보고 저마다 한바다씩 한다. "개만도 못한 인간들.. 개 같은 것거려, 들어라고 탄식한다.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일이다. 하지만 이뿐만이 아니다. 신종교회매매 수법도 등장한지 오래라고 한다. 목이 좋은 장소를 골라 아예 교회를 새로 지어 매매하는 경우다. 또 다른 사례는 전임자가 후임자에게 교회를 넘겨주면서 소위 권리금을 받아 챙기는 것이다. 겉으로는 잘 드러나지 않지만 음성적으로 목회자들 사이에서는 이미 보편화되어 있는 실정이라고 한다. 최근 서울 강동지역의 한 교회는 은퇴를 앞둔 담임목사가 후임자 후보 4명을 놓고 인터뷰를 했다. 형식상 4명의 후보였지만 최종 결정권은 담임목사에게 있었고 이 목사는 자신의 자리에 오는 대신 1억원의 댓가를 요구했다고 한다. 결국 이 교회는 1억 원의 댓가를 준비한 사람에게 넘어가고 말았다. 이 같

은 사례는 소위 전통과 규모면에서 중,대형교회들 사이에서도 비밀비재하게 일어난다. 100년 가까운 역사를 지닌 서울 종성가의 한 교회의 경우, 후임자가 전임목회자에게 5억 원의 상납금을 주었다는 소문은 아예 기정사실로 굳어지기까지 했다. 참으로 믿기 힘든 현실이지만 이처럼 오늘날 한국교회는 하나님의 몸 된 성전을 자신의 소유처럼 팔고 사는 매매행위를 아무렇지도 않게 반복하고 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겉으로 드러나는 원인은 배후에는 목회자는 많은데 비해 목회자가 부족한 수급불균형에서 찾을 수 있다. 2002년 종교연감에 따르면 우리나라에 세워진 교회 수는 약 6만 여개. 목회자는 12만 명에 이른다. 어림잡아 교회보다 목회자가 두 배 가까이 많은 상황이다. 문제는 교육부 인가를 받은 정식 신학교와 무인가 신학교를 합쳐 매년 6천여 명의 목회자가 배출된다는 점이다. 하지만 교회개척의 현실은 그다지 쉽지 않다. 시대적인 흐름은 다양화와 대형화의 추세다. 대형마트, 대형백화점, 대형식당 등 점점 대형화 위주의 상권을 중심으로 고객 끌림과 집중화 현상은 이제 교회에까지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 매머드급 대형 교회들의 등장으로 이제 교회는 예배중심만이 아닌 스포츠 레저문화와 청중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충분한 공간과 시설을 갖추어야만 하는 시대에 이른 것이다. 목회자의 영성과 설교능력보다 교회시설의 현대화, 대형화, 조직화, 프로그래밍화 같은 교회가 손쉽게 부흥하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이다. 그랬다보니 대부분의 개척교회들은 오직 살아남기 위해 안간힘을 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인가 신학교를 중심으로 단기 속성과정을 거친 목회자광생들이 설세 없이 □아져 나오고 있으며 이들이 기존의 교회로 흡수되기 힘든 현실에서 그들이 택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교회를 개척하는 일이다. 이들에게 목회자를 얻기 위해 가장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기독교인터넷사 이트나 교계신문 등이다. 이들에게 교회매매광고는 인기를 끌었다. 자신의 경제적 여건에 맞추어 교회를 선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

만 바로 여기에 일부 합정이 도사리고 있는 것이다. 교회 매매가 무조건 나쁜 것만은 아니다.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 기존의 교회가 자연적인 부흥성장으로 수용능력이 한계에 도달하거나 확장의 기회가 왔을 때, 수 천만 원의 시설비용이 들어간 예배당을 갑자기 폐쇄해 버리고 전혀 다른 업종으로 교회건물이 바뀌는 것보다는 교회가 새로운 후임자를 맞아 계속 유지되는 것이 대 사회적, 선교적인 측면에서도 바람직하다. 또한 목회를 갓 시작하려는 목회 초년생들에게 경제적 상황에 맞춰 개척의 기회를 제공해주는 것 또한 바람직하다. 필자 역시 목회를 시작하면서 처음 개척한 장소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고 지금의 목회지로 오게 되었다. 물론 처음 개척당시에는 빈 상가건물을 임대하여 역대 이상의 시설비와 성구비가 소요되었고 개척5년 간 피와 땀과 눈물로 전도한 많은 성도들을 포함하여 겨우 이사비용 정도의 금액으로 넘겨주었다. 하지만 내가 개척하여 세워진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고 있음에 감사하고 보람을 느낀다. 성전매매는 참으로 조심할 일이다. 하나님께 결코 기뻐하실 일이 아니다. 더구나 개인적인 사리사욕이나 처부의 수단으로 목회 장소를 팔고 사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아나니아와 사바나를 주고 성령을 사려했다가 돈과 함께 망할 것 이라는 사도바울의 엄한 책망을 보듯이 오늘날 진정된 믿음과 눈물과 피, 그리고 수고와 헌신의 댓가 없이 돈으로 완성된 교회를 사서 졸지에 담임목사가 되고 당회장의 권세를 누리려한다면 이는 분명 불법한 일이다. 돈으로 세워진 교회는 마침내 모래위에 세운 집 같아서 곧 무너지고 말 것이다. 또한 성전을 팔아 쟁긴 이익을 가지고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또한 무엇을 한들 하나님께 축복하시겠는가? 오늘이 시대 또 다른 병폐현상인 성전매매의 일그러진 한국교회 현실을 남의 탓이나 처부로 돌리기 전에 먼저 우리 자신 스스로도 부끄러움이 없는지, 돌아보아야 할 것이다.

평안교회 장승현 목사 본지논설위원

예장(웨신총회) 제3기 부흥강사연수교육 성황리에 마쳐



대한예수교장로회(웨신총회) 부흥사협의회 대표회장 장창운 목사는 3월 12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9시까지 서울 구로구 구로 2동 초원교회(김태곤 목사)에서 제3기 연수교육을 가졌다. 이날 제3기 웨신총회 부흥강사협의회의 연수교육에 앞서 대표회장 장창운 목사 사회로 예배가 진행되어 부흥회장 정기남 목사가 막 16:17~18절의 말씀을 인용 "믿는 자들에게 따르는 표적들"이란 제하의 말씀을 선포했다. 부흥회장은 "오늘 이 시대는 병들지 아니한 곳이 없다면 영적인 세계가 타락하고 병들었음을 지적하고 부흥사 연수교육을 통해 성령안에서 능력을 공급받아 병든 사회

와 교계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직시했다. 이어 부흥회장 정기남 목사는 지난 1,2기를 수료한 부흥사들에게 임명장을 전달하고 연수원장 정바울 목사 축도로 마쳤다. 이어 오후 연수교육에 들어가 제1강에서 대표회장 장창운 목사가 "부흥사와 찬양"에 대해서 강의를, 제2강에 상임회장 심재호 목사가 부흥사와 재림에 대해, 강의를, 제3강에 행정원장 이홍국 목사가 부흥사의 자질에 대해 강의를 했다. 연수교육을 마치고 사무총장 김태곤 목사 사회로 폐회예배가 진행되고 실무총무 정창민 목사 기도, 지도위원 지영철 목사가 설교를, 연수원장 정바

울 목사가 대표회장에게 감사패를 전달하고 대표회장 장창운 목사가 연수원장 정바울 목사에게 감사패를, 사무총장 김태곤 목사에게 공로패를 전달하고, 연수원장 정바울 목사는 연수교육을 마친 수료자들에게 증서를 전달하고, 재정원장 이창우 목사 축도로 마쳤다. 이어 저녁 7시 30분부터 사무총장 김태곤 목사 사회로 부흥대성회가 시작되어 주만나교회; 김재인 목사가 기도를, 특송에 박순애 전도사가, 대표회장 장창운 목사가 부흥회를 인도해 많은 은혜와 축복이 임하는 성회가 되었다.

은혜교회 입당 및 임직감사예배 드려 전 교인 힘을 모아 새운 성전 은혜교회(담임 김성옥 목사)



대한예수교장로회 은혜교회(담임 김성옥 목사)가 지난 2월 24일(화) 오전 11시 경기도 의왕시 삼동 174-1 소재에 새 성전을 건축하고 입당감사예배와 임직식이 거행되었다. 은혜교회는 1986년 9.30일 설립되었으며 "예수중심, 말씀중심, 선교중심"으로 서있는 교회"라는 표어아래 중형교회로 우뚝 섰다.

이날 오전 11시 중경노회장 정근화 목사 사회로 진행된 예배에 (서부노회장)정선경 목사 기도와 (중경노회장) 김명재 목사가 성경봉독을, 은혜교회 찬양대의 특별찬양에 이어 총회장 신용현 목사가 "잘 하였고다"라는 제하의 말씀을 선포했다. 이어 김선주 장로, 김상현 안수집사, 이금남, 황사연, 최현순 권사

들이 은혜교회를 섬기며 중경봉사와 헌신한 것을 다짐하며 임직을 받았다. 이날 권면에 김선주 장로에게 (뒷밭사랑교회) 강찬기 목사, 안수집에게 (총회부흥사회) 김송수 목사, 권사에게 (중부협의회회장)정창학 목사, 교우들에게 (총동문회장)백성덕 목사 등이 맡았다. 또한 (중경총회장)이봉기 목사, (직전총회장)임장섭 목사가 격려사를, (개혁공보사)장근태 목사, (개신대학원대학교총장)손석태 박사, (부흥총회)김병호 목사, (중경노회장)고태주 목사 등이 축사에 나섰다. 이어 건축위원장 최재중 장로가 인사 및 광고를, 담임 김성옥 목사가 감사 및 공로패 수여를 (개신대학원대학교 이사장) 조경태 목사 축도로 마쳤다.

축 부활

열두광주리기도원 정기성회

찬양 + 말씀 + 기도
응답 + 지유 + 회복

2009 김평호 목사상반기 부흥성회 일정

1월 집회일정
1월 1-7일 일본국제기도원(요코하마)
1월 10일 광주 바울수양관
1월 12-15일 열두광주리기도원(포천)
1월 19일 성남 선민교회
1월 19-22일 파주 뱀열기도원
1월 26일 보아스 사랑의집

2월 집회일정
2월 2-4일 열두광주리수양관
2월 9-14일 요코하마, 니카타(국제 그리스도통신)

3월 집회일정
3월 2-4일 열두광주리(도원)
3월 8-11일 전주 은일교회



김평호 목사 프로필

선한목자 부흥사회 대표회장
열두광주리수양관 원장
H.P.010-8411-0191 031-535-6975
(부흥사 외원 기립환영, 자비방부흥성회 인도)

경기도 포천시 군내면 하성북리 350번지
010-8411-0191, 031-535-6975
선한목자부흥사회 대표회장 : 김평호 목사 (열두광주리 기도원 원장)

축 부활

대한예수교장로회 소망교회

담임 김 동락 목사와 교우 일동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성환) 총무,
(본지 상임이사)



문의 : 031) 968-0199

교회주소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성사동 719번지

축 부활

대한예수교장로회 동심장로교회

금일표어 : 말씀, 기도, 성령의 능력으로 새롭게 전진하는 교회

주 일 낮 : 오전 11시
주 일 오후 : 오후 2시
수 요 기도 : 오후 7시 30분
새벽 기도 : 새벽 5시 30분
목 요 찬 양 : 오후 8시 30분
유 · 초 등 부 : (토)오후 4시 30분
대학 · 청년 부 : (토)오후 6시

원로목사:전영춘
담임목사:전봉화
반 주:김민정

기도

- 1. 교회 부흥
- 2. 성령 충만
- 3. 말씀 충만
- 4. 사랑 충만
- 5. 은혜 충만

143-150 서울시 광진구 군자동 96번지
☎.02)463-0288

목회는 죄와 악한 영을 몰아내는 것

주님이 나를 믿어주는 관계가 되어 주님이 일하신다



제39차 초교파 목회자부부정책세미나에 참석한 수현 영회 목사와 선교사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 사진 조동혁 기자

“마귀 IQ는 5,800이라고 합니다. 우리 머리론 마귀를 이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대해 너무 잘 압니다. 마귀가 목회자를 넘어뜨릴 때 동원하지 않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이런 마귀역사를 알 수가 없고 이길 수도 없습니다.” 지난 2월 20일(월)부터 26일(목)까지 흰돌산수양관(원장 윤석전 목사)에서 열린 제39차 초교파목회자부부영적세미나 개강에 앞서 김삼환 목사(명성교회, 예장통합 총회장,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회장)는 다니엘서 6장의 본문을 통해 기복교는 영적 싸움이며 이 싸움에 없으면 죽는 사람이라면 영적 싸움에 메시지를 정조준했다.

이어진 저녁 집회, 강단에 선 세미나 주강사인 윤석전 목사(연세중앙교회)는 본격적으로 목회자와 성도들을 미혹하여 목회를 방해하고 교회를 무너뜨리고 있는 마귀와의 영적 전투를 위해 말씀의 포문을 열어 무차별 함포사격을 가하기 시작했다. 그것은 성령님께서 윤 목사의 입을 통해 이번 세미나에서 다루시려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의중이실 뿐 아니라 말씀의 능력이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 그 실재를 입증해 보이시려는 사역의 시작이었다.

도대체 오늘날 목회자와 사모를 미혹하는 마귀의 체계가 무엇이란 말인가. “목회자가 이 세미나 저 세미나에 가서 이렇게 하면 된다 저렇게 하면 된다 하여 프로그램을 배워 그대로 했는데 안 되더라. 미혹당한 겁니다.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성경이 뭐라 했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주님이 사시는 대로 해야 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전도하라고 했는데 전도 안 한다. 미혹당한 겁니다. 기도하라고 했는데 안 한다. 미혹당한 겁니다. 말씀에 순종하라고 했는데 안 한다. 미혹당한 겁니다.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라 질병을 고쳐라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안합니다. 왜 안하냐? 마음이

미혹당해서 그렇습니다.”

“성경은 실제로 능력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학문화 이론화 논리화시켜 말로만 갖고 설교합니다. 미혹당한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미혹당하면 자기가 미혹당한 줄도 모릅니다.” 성령님께서 윤 목사의 입을 통해 선포하신 말씀 한 마디 한 마디가 참석 한 목회자들과 사모들의 심령을 파고들자 그동안 자들의 생각을 미혹해 왔던 어둠의 실체들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왜 목회를 못합니까. 적을 이길 만한 능력이 없어서입니다. 왜 기도를 못합니까. 왜 전도를 못합니까. 성도들이 설교를 들을 때 통쾌하지 않습니다. 적을 이길 만한 능력이 없어서입니다. 왜 능력이 없습니까. 내가 미혹당해서 그렇습니다. 오늘까지 내 생가 속에 갇혀 있어서 그렇습니다. 안 되는 그것에 갇혀 있어서 그렇습니다. ‘뭐라 때문에 못됐다’라는 이것에 갇혀 있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나와 사이에 나라는 벽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내가 방해자였습니다.” 이때 “오아아...” 하며 한 목회자의 통곡소리가 터진다. 강력한 말씀 앞에서 굴복하고 만 어둠의 세력. 나 자신도 몰랐던 내 속의 나의 정체가 밝혀지고 나를 미혹해 하여 목회를 방해해 온 마귀의 체계가 드러나자 견딜 수 없는 통곡이 가슴속에서부터 터져 나온 것이리라.

“성령충만하면 기도하고 싶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싶고 병자 고치고 싶고 귀신 쫓아내고 싶고 싶어집니다. 성령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면 내 속의 거짓, 음란, 험기 등을 뜯어고칩니다. 나로 하여금 예수의 영향권 안에 들어가게 합니다. 이렇게 내게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면 하나님의 능력이 파장을 일으킵니다.”

“성령님이 나를 편리하게 마음대로 쓰실 때 은사가 나타납니다. 성령의 은사가 없인 목회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귀는 우리가 성령충만하지 못하도록 막습니다. 그러나 우린 반드시

성령충만해야 합니다.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도록 사모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이렇게 목회할 때 교회는 반석 위에 세운 교회가 되고 예수의 영향권 안에 들어간 교회가 됩니다. 그러면 반대되는 음부의 권세는 철수될 수밖에 없으며 저주, 질병도 떠나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 성령님은 참석한 목회자들과 사모들로 하여금 ‘아, 나를 미혹하고 성도를 미혹하는 마귀의 체계를 그동안 몰랐구나. 알아도 몰리칠 수 있는 힘이 내게 없었구나. 문제는 바로 나였구나’를 깨닫게 해주었다. 그리고 선 마침내 성령님은 윤 목사의 입을 통해 마지막 한방의 결정적인 미사일을 날리게 하였다.

“저수지에 물이 있어야 물은 흘러보낼 수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복이 내게 있어야 성도들에게 복이 흐르게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성령충만해야 나를 통해 성도들이 성령충만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렇습니까.”

지저스타임즈

www.cpi.kr 인터넷방송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서울다-07837 (본지는 신문윤리규정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한다)

이사 및 논설위원과 해외지사
발행인 : 정기남 목사(예장예신총회 부총회장)
상임고문 : 피종진 목사(남서울총교회)
이 사 장 : 전영준 목사(동심교회 일로목사)
사 장 : 소진우 목사(예복교회)
부 사 장 : 현병우 목사(임마누엘선교회)
본사편집부장 : 김규리(나래이미지 대표)
전국지사
대전지사 이사장 : 박양우 목사(대전경찰청 경목위원회 상임총무)
대전 총청지사장 : 라영수 목사(지사장) 전희희 사모(부 장)
전남 목포지사 지사장 : 조광호 목사(목포만나교회, 목포신학교 학장)

해외지사
우간다 지사장 : 김기일 선교사 호주 지사장 : 이종수 선교사
미국 워싱턴 지사장 : 정형선 목사 일본 지사장 : 전동중 목사(동명신학교 학장)
태국 치앙마이 지사장 : 전승주 선교사

본부 업무국 부장 : 정태동 목사
본사 이사회 사무국 : 전희희 부장

서울시 중로구 인의동 48-26 (영할공제회) 12층
본지인터넷신문방송 www.cpi.kr (E-mail:webmaster@cpi.kr)
전화:070)8230-0032, 0034, 02741-0031, 02407-6574, 팩스:02763-0221
대표 : 011)468-6574

韓國聖經公會 제13회總會가져

韓國聖經公회는 지난달 27일 오전 11시 서대문 창전동 소재 창광교회(이병규 목사)에서 제13회 총회를 개최하고 한국성경공회에서 발행한 바른 성경 보급 활성화를 모색하자는데 뜻을 같이 했다.

대표회장 이병규 목사는 성경번역작업은 옥동자를 입신한 고통이었다면 그 출판은 해산의 고통이었다고 말하고, 성경공회가 이러한 과정을 지나 이제는 임신의 고통이나 해산의 고통보다 더 힘들고 중요한 양육의 수고와 책임감당을 역설했다.

해산의 고통 속에 출판된 바른 성경 보급에 박차를 가하고 한국교회 모든 강단에서 사용하는데 있어 각 교단과 의 뜻을 모을 것이며, 또한 한국성경공회의 회원교단이 힘써야 하고 바로 이것은 우리 모두의 몫이라고 했다.



한글 성경이 번역 출판된지가 1세기를 넘었다며, 개역성경에 있는 언어들이 많아 청소년들에게 낯 설은 성경이나 이해할 수 없는 성경, 어려운 성경이 됨으로써 성경과의 괴리감을 갖게 되어 마침내 성경에서 많은 청소년들을 떠나게 한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결론을 내리고 바른 성경 보급에 일치된 뜻을 모았다.

또한 김용실 목사는 전적으로 교회의 지도자들과 기성세대가 그 책임이 있음을 동감하고, 그러므로 우리는 현대어로 성경을 읽고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 바른 성경을 널리 알리고 보급하는데 힘을 합할 것을 주문하고, 이를 위해 회원 교단의 강단들이 하나님의 말씀 바른 성경으로 설교하고 가르쳐 지킴을 할 것을 굳게

결의하는 총회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인사말을 했다.

이날 총무 김태운 목사의 사회로 개회예배가 진행되어 서헌철 목사 기도, 이준원 목사 성경봉독, 예장통합 증경 총회장 김용실 목사가 “생명의 말씀”란 제하의 말씀을 선포했으며, 김병호 목사, 정한식 목사, 박광수 목사, 박용기 목사가 특별기도, 최보기 목사, 윤희구 목사가 순서를 맡아 축하를, 황창기 목사 인사와, 황성일 교수가 바른 성경 설명, 변남주 목사 축도로 마쳤다.

이어 대표회장 이병규 목사 사회로 총회가 개최되고 이한영 목사 기도와, 회원점령, 개회선언 회순채택, 경과보고, 출판현황 보고, 감사보고, 회계보고, 정관개정을 한 다음, 임원선거를 거쳐 신·구 임원교체가 이루어지고 신안건투의에 들어갔다.



신학기를 맞아 캠퍼스 ‘이단경계주의보’

신학기를 맞은 각 캠퍼스에 주의해야 할 이단경계령이 발표됐다. 학원복음화협의회는 본격적인 캠퍼스 사역이 시작된 3월 들어 이단경계주의보를 내려줬다.

학원복음화협의회(이하 학복협)는 올 신학기에 또 이단들의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예견하면서, 캠퍼스 및 교회 청년대학부의 피해 최소화를 위한 당부사항을 전했다.

학복협이 가장 주의해야 할 선교단체로 꼽은 단체는 IYF, 신천지, 통일교를 지켰다.

IYF(International Youth Fellowship)국제청소년연합회는 구원과 박육수 계열에서 만들어진 단체로, 성화가 배제된 중생의 구원만을 강조하고 거기에 초점을 맞추어 성경을 해석하고 있다는 것이 학복협의 설명이다.

학복협에 따르면 IYF는 캠퍼스에서 추측 등 명절에 ‘중국인 문화의 밤’, 영어말하기 대회, 명사초청강연회, 굿뉴스로 해외자원봉사, World Camp 등 다양한 행사를 통해 단체를 알리고 있으며, 최근 기본 소식 선교회와 관련된 문화의 원 주회 아토피극복 캠프 등도 홍보 중이다.

학복협은 신천지를 선교단체 및 일반교회에 잠입하는 활동으로 최근 캠퍼스에 가장 큰 위험이 되는 단체로 꼽았다. 이와 함께 학복협은 최근 비판 세력에 대해 폭력행사 및 범법행위를 하고 있는 사례와 ‘선교한국’ 등 잘 알려진 단체 및 기구 이름을 도용해 선교센터를 운영하는 신천지의 포교 전략을 공개했다.

학복협 발표에 의하면 통일교는 캠퍼스 내에서 가장 주의해야 할 선교단체로 꼽은 단체는 IYF, 신천지, 통일교를 지켰다.



▲한기총은 이단사이비 연구 종합자료뉴스이전

퍼스 내에서 World-CARP(월드카프, 원리연구회)라는 이름으로 활동하며 민통선 통일봉사단(IMZ Service), 화이트캠퍼스운동, 순결운동 등을 펼치고 있다. 특히 학복협은 통일교의 활동에 대해 최근 대학 총학생회 및 학생자치기구(대학운영위원회, 동아리연합회, 단과대 학생회 등에 진출하려는 시도가 있었음을 밝히면서 이단

이미지를 복식시키고 최근 영향력을 확대하는 것을 우려했다.

이단사이비, 가장 확실한 대처는 ‘하는 것’ 학복협은 최근 이단들의 다양한 활동을 소개하면서, 이들에 대한 정확한 정보 인지를 가장 우선적인 대처방안으로 꼽았다.

이들이 사용하는 이름과 마크, 관련 기관, 활동 등을 파악하고 기록 단체 리더들과 회원들에게 알리는 일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 지역교회와 대학선교단체 간 네트워크 형성을 통해 이단정보 및 대처방법을 공유할 것을 조언하기도 했다. 학복협은 “최근 JMS 10년형 구형 등 이단에 대한 여러 이슈와 피해사례로 이단을 경계하는 의식이 예전보다 많아졌지만, 이단 역시 적실한 대응을 통해 자체 역량 강화와 대외 이미지 개선에 힘쓰고 있어 주의를 요한다”고 당부했다.

학복협은 참고 사이트로 현대종교(http://www.hdjonggyo.co.kr), 교회와 신앙(www.amennews.com) 참고저서로 <순에 잡히는 이단+사이비 정보 가이드 북>(학원복음화협의회), <이단사이비연구종합자료II>(한국기독교총연합회) 등을 추천했다.

목회자 및 평신도 초청 무료 공개

자연치유 건강세미나

현대의 의술로 고칠 수 없는 불치의 병들을 대체의학으로 치료함으로써 성경적 치유로 고침 받아 불신자와 관계성 회복에 탁월한 전도를 통한 교회 부흥을 원하시는 분들을 초청합니다. 몸이 불편한 분, 건강하지 못한 분, 치유받기 원하는 분도 초청합니다. 어서 오세요.

대체의학 치유목회 원하시는 분 / 대체의학 사역을 원하시는 분
취업과 건강사업을 원하시는 분 / 각종 난치병으로 고생하시는 분

- 일시 : 2009년 4월 2일(목) 오후 2시
- 장소 : 본교강당 (1호선 영등포역에서 버스 260번 타고 신월시영아파트 정문하차)
- 대상 : 목사, 강도사, 전도사, 사모, 장로, 기도원장, 평신도, 치유사역에 뜻이 있는 사명자
- 강사 : 장관섭 목사, 김병로 목사
- 대표전화 02) 2691-3920 / 011-772-2495 순착순 접수(전화로 접수)



장관섭 목사
미국캘리포니아신학대학원 졸업
캐나다크리스천신학대학원 졸업
한국개혁신학연구원 학장
한기총신학연구원위원 연구위원
제)국제복자선교협회 이사장



김병로 목사
경희대 한의대 졸업
경희대 한의대대학원 침구과 수료
웨스트민스터신학대학원대학교 졸업
김병로한의원 원장
한국기독교한의사회 지도목사



한국개혁신학연구원

REFORMED THEOLOGICAL SEMINARY OF KOREA
우 158-097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월7동 982-3번지 신월빌딩 5층
대표전화 02-2691-3920 홈페이지 http://reformedacademy.org



학장·신학박사 장관섭
석·박사 학위과정은
미국 명문신학대학원
계절학기 프로그램 연결
(미국 문부성, 주정부,
대학협의회 인가 대학교)
미국본교와
호주지역에서 수강

- 모집기간 : 2009년 3월 수시모집
- 원서접수 : 본교 행정실
- 전형일시 : 면접과 서류전형 (신앙과 인격중심)
- 전형장소 : 본교 강당
- 문 의 : 자세한 사항은 본교 홈페이지 참조

행정실 ☎02-2691-3920)로 문의



한국개혁신학연구원

REFORMED THEOLOGICAL SEMINARY OF KOREA

☎ 158-097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월7동 982-3번지 신월빌딩 5층

대표전화 : 02-2691-3920

홈페이지 http://reformedacademy.org

자연치유학부는 대체의학과
/자연치유학과(대학원과정)
1기생모집,
각종 자격증 취득

광저우 교회 기도함성... 중국 복음 새 역시 쓴다

김성혜 총장 중국 정부 초청으로 기독교 집회 열이

한세대학교 김성혜 총장이 중국 정부의 초청으로 20~24일 광둥성 광저우를 공식방문. 협화교회와 동산교회에서 부흥성회를 인도했다. 김 총장의 이번 외국인 목사로서 정부 공식초청 방문은 광둥성 광저우 기독교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20일 김 총장 일행이 광저우 국제공항에 도착하자 광둥성 기독교협회 목회자와 협화신학교 교수, 성도 등 40여명이 '열렬히 환영합니다'라는 플래카드를 들고 김 총장 일행을 환영했다. '합력부야'하며 기쁨환영을 하자 광저우 기독교 관계자는 "광항이 생긴 이래 광항에서 합력부야라고 외친 것은 처음"이라고 전했다.

이날 광동 협화신학교에서 총장이자 광둥성 기독교협회 부총장 천이부목사는 "조용히 묵사념이 기증한 컴퓨터를 도서관에 놓아 젊은 중국 신학생들이 잘 이용하고 있다. 협화신학원 안에 광둥성 유일의 양로원을 운영하고 있지만 지난해 오산리기도원을 다녀온 후 영신수련원 같은 젊은이들을 위한 공간을 만들자는 꿈을 가지게 됐다"고 말했다.



광둥성 삼자애국운동위원회 천추평 주석은 김 총장 일행을 환영하기 위해 급하게 상해에서 왔으며 김 총장에게 "마카오와 홍콩을 통해 전해진 기독교는 1950년 전만해도 신학교와 교회 가 부흥했지만 그이후 중국 정책으로 인해 광둥성내 신학교는 1개만 남고 중국기독교는 내리막길이었다. 하지만 1971년부터 회복이 되고 있다. 현재 광둥성 내에는 750개의 교회가 있고 삼자교회협회와 기독교협회는 이런 교회와 신학교를 지지하고 있다. 지금은 한국의 여러 교단과 교류하고 있는 중이다"고 말했다.

광둥성민족종교위원회가 주최한 환영 만찬에 참석한 김 총장은 "중국에 복음의 씨를 뿌리는 신학원을 보고 감



동을 받았다. 이곳에서 중국의 희망을 볼 수 있어 하나님께 감사 드린다"고 말했다. 이날 모임에는 양원성(광둥성 민족종교위원회 부주임), 황중성(광둥성민족종교위원회 처장), 장홍카이(광둥성민족종교위원회 조사연구원), 위추이핑(광둥성광둥성민족종교위원회 종교 주임과원) 등이 참석했다.

21일 광둥성 기독교협회와 삼자교회협회 회장단이 김 총장을 예방했다. 광둥성 기독교양회 주최 오찬에서 김 총장은 "예전에는 오기도 힘든 중국에 한세대 총장이로서 신학교를 둘러봤는데 생각했던 것보다 많이 달라서 놀랐다. '가서 제자 삼으라'는 예수님 말씀이 생각이 난다. 12명의 예수님 제자가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한 것처럼, 한세대 출신의 많은 목회자가 있는 것처럼 협회신학교에서도 많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 많은 사람들이 여의도순복음교회 성장 비결에 대해 묻는다. 그러면 조용기 목사와 나는 하나님의 역사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다. 하나님은 중국 복음화의 물꼬를 터주셨다. 중국에 성령이 충만하기를 기도한다"고 말했다. 22일 김성혜 총장은 협화삼자교회예리 황 담임목사에서 주일에배를 인도했다. 이날 "기쁨과 행복을 가지려면"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한 김 총장은 "참된 기쁨과 행복을 누리려면, 진정으로 자기 자신을 발견하여야 한다. 그리고 자신의 양심과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한다"며 "하나님의 뜻을 따

르고 기쁨과 행복을 갖고 느끼며 살려고 결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유와 결신도 이어졌다. 꺾은 손을 잡고 와서 김 총장의 기도를 받은 중풍병자가 갑자기



성전만 만 아니라 부속성전에서도 수 많은 사람이 안수기도를 받기 위해 몰려들었다. 이날 다리가 굽은 조선족 할머니의 다리가 펴지는 등 많은 신유의 역사가 일어났다.

이날 오후 광저우 최대교회인 동산삼자교회(천수이성 담임목사)에서 김 총장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탕자의 비유와 함께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설명했다. 김 총장은 "성령 안에서 우리는 매일같이 영적인 잔치를 하면서 살고 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적잔치를 베풀었다. 다음에 범사에 잡히는 잔치를 베풀면서 살고 있다. 육적으로 강건할 수 있는 은혜를 받고 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삼중 축복을 소유하기를 원하신다"며 모

두가 영적인 잔치에 참여하자고 호소했다. 협화교회와 동산교회에 1600여 성도와 4000여명의 성도들이 각각 참석, 많은 성도들이 휴대전화 등으로 김 총장의 설교 동영상 촬영하는 진풍경이 연출되기도 했다. 이는 중국 기독교가 부흥하고 있음을 보여줬다.

이날 김 총장 일행은 광둥성 종교국장이 국제컨벤션센터에서 초청한 오찬과 광명(광둥성 기독교협회 회장)이 주최한 만찬에 참석하여 광둥성 기독교 발전을 위해 환담을 나눴다. 광명회장은 "밖에서 보는 것과는 달리 중국 기독교는 부흥되고 있다"고 말했다.

23일 김 총장은 광동협화신학원에

도한 후 신학생들과 집의응답시간을 가졌다. 이날 광둥성 민족종교처와 기독교협회 초청으로 오찬 환담모임에 참석한 후 광둥교육대학을 방문, 한세대와 교류협정식을 가지고 양교의 협력력을 약속했다.

이번 김성혜 총장 광저우 방문은 중국 광둥성의 교회와 신학원이 활기를 찾고 신앙적 성숙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다. 또한 김 총장의 순복음의 메시지로 일어난 신유와 성령은 동은 중국선교에 청신호를 밝히고 기독교 역사의 새로운 장이 열리고 있음을 일러 주었다.

경인 부흥사협의회 발기



이러 특별기도에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예닢교회 김만옥 목사, 한국교회와 목회자를 위하여 은총기

경인부흥사협의회 발기예배가 지난 2월 12일 오전 11시 인천 은혜교회에서 사무총장 고명복 목사 사회로 영광제일교회 송미순 목사가 기도, 소성기도인 김경철 원장이 성경말씀 요한복음 8:3-12절을 봉독하고 세라임 선교사가 특송을, 대표회장 장창원 목사는 "빛의 사명자가 됩시다"라는 말씀을 전했다.

다. 또한 예감교회 김장영 목사가 경인부흥사협의회 발기 취지문을 다음과 같이 낭독했다.

『우리는 총체적 위기의 시대라 말하는 오늘날 하나님의 영광과 조국교회의 요구에 따라 의분을 품고 분연히 일어나 어두워져가는 이 땅 위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고자 한다. 우리의 작은 수고와 헌신됨을 통하여 이 시대가 변화되

기를, 사라져 가는 교회의 영광과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가 다시금 조국교회의 정수리에 울려 지기를 소원한다. 이에 우리는 뜻있는 동역자들의 의지를 모아 진리의 봉화를 높이 들고 먼저가신 복음주의 선진들의 그 발자취를 따라 가고자 한다. 우리는 순결하고 맑은 영성을 지닌 부흥사 상을 구현할 것이다. 청렴하고 소박한 삶을 살아갈 것이다. 어렵고 힘든 지교회를 도우며 서로가 진목을 다지고 동질성을 회복하며 고통의 땅에를 나누어 지고 서로가 이기는 사랑의 방법을 익혀 갈 것이다. 절대 하나님 중심, 성경중심, 교회중심의 사역을 실천할 것이다. 비기독교적 내용들은 흠이라도 배척할 것이다. 자신의 유익과 청산을 구하기보다는 믿음의 명분을 지키고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를 낮게 여기며 섬겨 복음적

삶의 실재를 이루고자 힘쓰는 성경 지인으로 살아갈 것이다.』

이날 대표회장 장창원 목사가 공포하고, 호신교회 박정열 목사가 축사를, 찬미교회 김강열 목사가 봉헌기도를, 연수원 장 정민철 목사 축도로 마쳤다. 경인부흥사협의회 발기인은 아래와 같다 총재 피종진 목사, 자문위원 류성열 목사, 지도위원 정기남 목사, 연수원장 정민철 목사, 대표회장 장창원 목사, 호신교회 박정열 목사, 소성교회 고명복 목사, 김강열 목사, 예감교회 김장영 목사, 등불교회 광영민 목사, 영광제일교회 송미순 목사, 예닢교회 김만옥 목사, 생령수교회 함인애 목사, 이레교회 안순자 목사, 소명기도원 김경철 원장, 오병이교회 권영순 목사, 은총기도원 노복녀 목사, 유미경 목사, 영광교회 김사라 목사, 우시랑 목사,

어도비 포토샵의 기본편

1. 포토샵의 화면구성과 이미지 불러오기 및 저장하기
 2. 포토샵의 공유함인 '툴박스' - 보정작업의 기초 선택툴
 3. 포토샵의 공유함인 '툴박스' - 얼굴의 여드름과잔주름 지우기의달인 '힐링 브러시' 툴
 4. 포토샵의 공유함인 '툴박스' - 포토샵에서 글자도 쓴다 텍스트 툴
 5. 이것을 모르고서 포토샵을 안다고 말하지 말라 - 레이어
 6. 어둡게 촬영된 사진을 밝게 보정 - 'Curves'
 7. 웃을 같이입히자 - 'Hue/Saturation'
 8. 인터넷 사이트에 사진을 올리려면 크기를 작게 하자 - 'Image Size'
 9. 효과를 주면 사진이 바뀐다 - 'Blur'와 'Sharpen'
 10. 인터넷 사이트에 사진을 올리는 기본 과정
- 집을 지을 때 기초공사를 잘 해야 하는 것처럼, 포토샵이라는 툴을 잘 사용하기 위해서는 툴박스 사용을 원활히 해야 한다. 그중에서도 선택툴의 사용은 기초중의 기본이라 할 수 있다. 기본 사용방법은 1)적절한 이미지를 불러온다.

- 2) 툴박스에서 '사각선택툴(위에서 두 번째)'을 선택한다.
- 3) 불러온 이미지의 일부분을 마우스 왼쪽 버튼으로 클릭한 채 드래그(drag)하고, 버튼 누름을 해제한다. 사각선택툴을 클릭한채로 있으면 숨겨져 있던 툴들이 나오는데, 그 중 두 번째 '원형선택툴'을 다시 클릭하면 사각선택툴에서 원형선택툴로 바뀌는 것을 볼 수 있다. 기본 사용방법은 사각선택툴과 같다. 툴박스를 클릭하면 바로 윗줄의 '옴션바'의 모양이 바뀐다. 다른 툴을 선택하면, 그 툴에 관계된 옵션들로 바뀌게 된다. 그 중 'Feather'라는 것이 있다. 우리말로 굳이 작게 하자 - 'Image Size'
- 3) 원본 이미지에서 일부분을 복사하기 위해, 클릭과 드래그를 실행한다.
- 4) Ctrl 키를 누른채 알파벳 C키를 누른다.
- 5) Ctrl 키를 누른채 알파벳 N키를 누른다.

- 6) 대화상자가 나오면 Enter키를 누른다.
 - 7) 아무것도 없는 하얀 도큐먼트가 나오면 Ctrl 키를 누른채 알파벳 V키를 누른다. 부드럽게 선택된 부분을 복사해서 새로운 도큐먼트에 붙여넣기를 실행한 결과를 볼 수 있을 것이다.
 - 실습:
 1. 원형선택툴을 클릭해서 Feather 값 100을 넣고, 이미지에서 선택을 해 본다.
 2. 원형선택툴로 Shift키를 누른채 선택해 본다.
 3. 사각선택툴로 Alt키를 누른채 선택해 본다.
 4. 원형선택툴로 Feather 값 150을 넣고, 'Shift'키와 'Alt'키를 동시에 누른채 선택해 본다.
- 다음 시간에는 이미지 수정을 위한 최고의 툴인 '힐링 브러시'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다.



대한예수교장로회 부활 광성교회



담임 장창수 목사

부 목사	전 정 우
안수집사	윤 김 이 조 차 공 정
윤 김 이 조 차 공 정	홍영우 두경중 윤

말씀으로 무장화!
기도로 능력화!
생활로 향기화!

447-140 경기도 오산시 결동 651-1
Tel : 031)373-1151, 377-9372 FAX : 031)372-2583

예배안내 대한예수교장로회 서울중앙교회

표어 : 최선을 다하고 최고의 축복을 누리자

부활

주일 낮: 오전 11시 / 오후 2시
수요기도회: 저녁 7시 30분
새벽기도: 오전 5시 30분
주일학교: 오전 9시 30분 / 학생회: (토) 저녁 7시



담임 장영기 목사



서울시 구로구 구로5동 531-4번지
☎ (02) 838-2208 팩스 (02) 838-2207

“가족같이 가정같이 평안하고 행복한 교회”

- 온 세상을 향하여 천국복음을 전파합니다.

부활



담임 목사 장승현

새 생명 가운데 사는 천국복음을 증거합니다. 죽은 영혼, 침체된 영혼에 생기가 들어갑니다. 반드시 영적인 부활이 일어납니다. 확신합니다. 참 진리의 목마름을 느끼는 곳에 찾아갑니다. 011-9027-9712

대/한/예/수/교/장/로/회 평인교회

충남 당진군 송악면 봉곡리 55-6 Tel, 041)356-0644 / Fax, 041)356-0646
E-mail : sunghyun732@hanmail.net H · P : 011-9027-9712

"경찰이다, 죽여라... 무전기 뺏고 주먹·발길질"

용산참사 추모시위대, 경찰관 11명 집단폭행 파문 지갑 빼앗긴 경찰관 신용카드 부정사용 의혹까지

지난 주말 용산 참사 추모집회에 참가한 일부 시위대가 밤늦게 까지 서울 도심에서 산발적 시위를 벌이면서 경찰관 16명을 집단 폭행했다. 특히 한 경찰관이 폭행 과정에서 지갑을 빼앗긴 직후 지갑 안에 있던 신용카드를 누군가 빼내 사용한 것으로 확인돼, 시위대의 소행으로 밝혀질 경우 도덕성 논란이 예상된다.

서울 해방경찰서에 따르면 7일 오후 9시20분께 서울역에서 추모집회를 마치고 동대문으로 이동한 200여명의 시위대 일부가 1호선 동대문역 일대에서 이 경찰서 정보과 최모(52)과, 박모(36) 경사와 의경 등 경찰관 11명을 집단 폭행했다.

시위대 40여명은 오후 9시10분께 동대문역에 도착해 6번 출구 계단을 올라오다 정보과 박 경사가 무전기를 들고 있는 것을 보고 달려들어 주먹과 발길질 세례를 퍼부었다. 이 과정에서 박 경사는 50대 초반으로 추정되는 남성에게 신용카드 3장과 현금 6만원이 든 지갑과 무전기를 빼앗겼다.

이어 5~6분 뒤 누군가 이 신용카드를 이용해 인근 창신동의 모 의류매장과 편의점에서 각각 15만4000원 짜리 점퍼와 2만5000원 짜리 담배 한 보루를 구입했다. 경찰 관계자는 "편의점에서 카드를 결제한 40~50대 남성이 시위대와 함께 지

하철을 타고 이동하는 장면이 찍힌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보해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200여명으로 불어난 시위대는 동대문역에서 나와 도로를 무단 점거하고 종로5가역 방면으로 이동하려다 방범 순찰대 1개 중대 70명이 제지하자 오히려 이들을 둘러싸고 교통과 이모(30) 순경과 의경 8명을 무리에서 끌어내 폭행했다. 당시 길 건너편에서 이를 주시하던 최 정보과장도 시위대의 공격을 받았다.

최 과장은 "시위대 10여명이 내가 들고 있는 무전기를 보더니 '경찰이다, 죽여라'라며 도로를 건너고 달려들었다"며 "마지 폭도와의 갑아 순간적으로 공포감을 느꼈다"고 말했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무전기 5대를 시위대에 빼앗겼다가 1대는 행인의 신고로 회수했다. 폭행 당한 경찰관들은 서울대병원과 경찰병원 등으로 옮겨져 응급조치를 받았다. 시위대 200여명은 이어 지하철을 타고 영등포로 이동해 밤 11시께 영등포구 당산동 유통상가 앞 도로에서 재집결해 행진하다 경찰에 강제 해산됐다.

이 과정에서 서울경찰청 기동대 소속 강모(42) 경사가 코뼈가 부러지고, 김모(25) 순경은 눈과 이마를 크게 다쳐 병원으로 후송됐다. 영등포서 관계자는 '김 순경이 2호선 영등

포구청역에서 나오는 시위대의 이동 경로를 보고하던 중 무전기를 보고 달려든 10여명한테 집단 구타를 당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시위대 해산 과정에서 8명을 연행해 조사하고 있다. 시위대는 앞서 오후 8시 45분께 서울역에서도 서울경찰청 기동대 소속 경찰 3명을 둘러싸고 10여분간 폭행했다.

서울경찰청은 이날 수사전담반을 긴급 편성해 경찰 폭행 관련자 검거에 나섰다. 주상용 서울경찰청장은 강 경사가 입원한 경찰병원을 방문

한 자리에서 "근무중인 경관을 낚치, 폭행하고 지갑을 강취한 것은 범죄국가에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빠른 시일 내에 범인을 검거해 엄정히 사법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용산참사 범국민대책위원회 측은 "이날 폭력은 일부 참가자들이 보인 물발행동"이라며 "이런 일이 생겨 유감이지만, 신용카드를 절제한 사람은 검거되었다."

강희경기자 kbstar@hk.co.kr



한국과 대만 기독교방송 연합 집회 개최 : C3TV와 GOODTV “본격적인 중화권 선교, 미디어 선교의 새로운 방향 제시”



기독교종합미디어그룹 C3TV 기독교복음방송(사장 김은호)이 대만에서 가장 오랜 기독교방송 송신자 중화권의 복음화 운동을 위해 수고해온 대만 기독교

중화권 선교를 위해 기도하며, 중국어 자막 서비스를 시행한 C3TV는 지난 2007년부터 같은 비전을 품고 있는 대만의 GOOD TV와 함께 협력 사역을

하고 있으며, 선교사명의 새로운 비전을 제시한 C3TV의 미디어를 통한 또 다른 방법의 중화권 선교사역이 공식적으로 시작하게 된 바 이번 연합집회는 특별한 의미가 있고 그 귀추가 주목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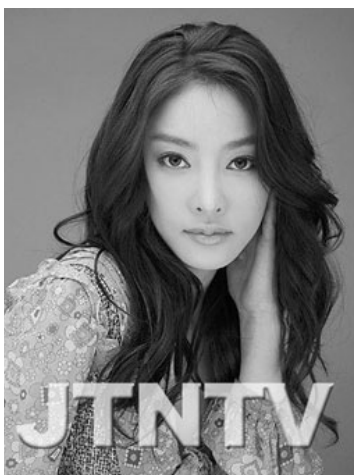
올해를 첫 회로 대만에서 매년 열리게 되는 '십자가와 성령 컨퍼런스'는 보수주의 신앙의 기초 위에 성령의 놀라운 능력의 사역을 쌓아, 성령의 열매와 은사의 조화 그리고 성령계 민감하여 주님과 동행하는 삶과 성령의 놀라운 능력으로 감당하는 사역의 조화를 추구하는 사역의 집회이다.

이번 행사는 한국에서 새물결선교

회, 대만에서는 대만네이션교회와 함께 8개의 대만교회들의 협력으로 250여명의 대만인을 위해 진행되며, 여주봉 목사(포도나무교회 담임)와 이길수 목사(예향교회 담임)가 집회 기간 중 말씀을 증거한다.

이번 컨퍼런스는 대만의 GOODTV와 기독교신문사에서 한 달 간 집중적으로 광고를 통해 동참하게 되며 집회 후에는 한국 C3TV와 대만 GOODTV에서 방영할 예정이며, 처음 시작하는 대만 집회에 대만을 향한 하나님의 행하심에 많은 중보자들의 동참이 필요하다. (참석문의 : 02-3219-5601)

탈런트 장자연 우울증 자살...



1. 2월 말 서울 하계동 A교회는 예배를 마치고 아파트에서 투신 자살한 B씨(28·여) 때문에 발각 뒤졌다. 평소 예쁜 외모에 부러울 것 없어 보이던 B씨는 사실 심각한 우울증을 앓고 있었다.

2 경기도 부천의 C씨(48·여)는 얼마 전 딸과 함께 기독교 학교 입학상담을 하다가 소스라치게 놀랐다. 아이가 왕따 문제로 자살을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밝힌기 때문. 그녀의 딸은 "유명 탤런트들이 자살하는 것을 보며 따라서 죽고 싶었다"고 털어놨다. 인기 드라마 '꽃보다 남자'에서 연기한 탤런트 장자연 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유명 탤런트들의 잇단 자살은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며 시대의 아픔이 패배했다. 이런 상황에서 교회도 예외는 아니라는 목소리가 높다. 그렇다면 우울증을 치료하기 위해 교회는 어떤 자세로 접근해야 할까. 우울증은 보통 다른 사람에 대한 두려

움과 열등감, 하나님에 대한 원망, 부모에 대한 분노 등에서 온다. 우울증은 성경에서도 자주 나타난다. 모세(민 11:15)와 엘리야(왕상 19장), 다윗(시 69편), 욥(17:7)도 심각한 우울증을 겪었다. 심지어 예수님도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마 26:38)라며 극심한 슬픔을 겪으셨다. 교회는 엘리야가 휴식과 음식 등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 우울증을 치료한 것처럼 육체의 필요를 채워주는 배려(왕상 19:5-6)를 해야 한다. 이때 엘리야는 자신의 모든 환경을 하나님이 통제하고 계시며 자신의 삶을 돌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또 엘리야는

교회 내에는 우울증을 비롯한 마음의 모든 병을 기도로 해결할 수 있다는 정서가 강하다"면서 "우울증은 감기처럼 마음이 허약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걸릴 수 있으며 치료하지 않고 방치하면 죽음으로 갈 수 있는 질병이라는 사실을 명심하고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울증 원인별로 적용할 수 있는 말씀 ■ 실망:"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엢4:32) ■ 자존감 결핍:"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

교회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 “영육 필요 채워주는 적극적 배려를”

하나님과 대화하는 동안 격렬한 감정을 표출했다. 하나님께서는 세 번이나 엘리야가 마음을 다놓고 그가 느끼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도록 자라하셨다. 다윗도 우울증에 시달렸으나 죄의 고백(삼하 12:13)과 용서, 감사(시 9:2), 보호하심의 확신(시 9:9), 기도(시 17:1)가 있었기에 극복할 수 있었다. 유익할 점은 확실한 증거가 있기 전까지는 영적인 문제로 돌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또 내담자를 절대 타이르지 말아야 하며, 우울증의 원인을 조급하게 해석하는 것도 금물이다. 정석 환 연세대 교수(목회상담학)는 "한국

시되"(창 1:27) ■ 비교의식:"하나님을 사랑 하는 자 곧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롬 8:28) ■ 거부감:"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사 43:1) ■ 신앙적 이유:"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아흔아홉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눅15:7)

국민일보

엄마가 어떻게... 초등생 남매 살해 드러나

병원서 수면유도제 빼내 투약 후 범행 경찰·진술·행동 의혹 많아 보강 수사

경기도 의정부에서 숨진 채 발견된 초등생 남매는 우울증에 시달리던 어머니의 손에 희생된 것으로 드러났다. 의정부경찰서는 5일 의정부시 기능동 자신의 집에서 지난달 28일 오후 7시 30분쯤 아들(11)과 딸(9)을 끈으로 목졸라 숨지게 한 혐의(살인 등)로 이모(34)씨를 검거해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간호조무사인 이씨는 지난달 21일 근무하던 병원에서 마약 성분이 포함된 수면내시경용 수면유도제와 주사기 2개를 몰래가지고 나와 범행 당일 남매에게 감기약이라고 속이고 혈관주사로 투약했다. 이씨는 이어 아이들이 졸음을 참지 못해 잠들자 확산에 있던 끈으로 아들과 딸을 차례로 살해했다. 이씨는 범행 후 강도사건으로 위장하기 위

해 숨진 남매를 거실로 옮겨 놓고 가구의 서랍을 열어 옷가지를 흠뻑 놓은 뒤 서울로 남편을 미쳤나갔다가 오후 9시 10분쯤 함께 돌아와 아이들을 발견한 것처럼 경찰에 신고 했다. 경찰은 숨진 남매가 반항한 흔적이 없는 점, 부검 결과 수면유도제 성분이 검출된 점 등을 이상하게 여겨 해당 병원에 확인한 결과 채고량에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어 강원도 영월에 숨어 있던 이씨를 체포해 범행을 추궁한 끝에 자백을 받아냈다. 이씨는 경찰에서 "평소 두통과 불면증에 시달렸고 살아가지 힘들다는 생각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이씨가 우울증으로 두 차례 검사를 받았지만 치료약을 복용하지 않는 등 증세가 그다지 심하지

않았고, 피아노 조율사로 일하는 남편과 자신의 수입이 월 300만원이 넘어 빛이 없는데도 생활고에 시달렸다고 주장하는 말이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더욱이 119신고로 구급대가 출동하자 이씨가 숨진 남매에게 인공호흡을 하며 "내 아이를 살려달라"고 울부짖었으나 곧바로 현장을 훼손하는 등 적절 않은 점이 많아 범행 동기가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현장에서 찾아낸 수면유도제 앰플과 주사기 2개를 증거물로 압수하고 이씨에 대해 살인과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의정부=김철호기자

인터넷, 총회신학,신,편입생, 모집 (남,여) 목사안수, 교단가입

- ◆ 본 교단은 대한예수교장로회(개혁총연)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에 가입된 교단입니다.
- ◆ 특히 경제적으로 힘들어 하는 사명자를 위해 전원 장학제도로 공부할 수 있도록 협력하고 있습니다.
- ◆ 직장인을 위해 시간적 낭비를 최소화 줄이기 위해 인터넷 통신으로 공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시장 정민철 박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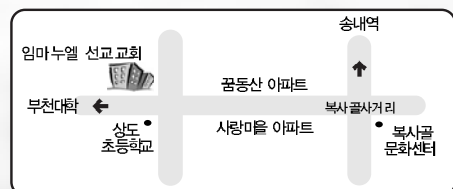
- * 아세아연합신학대학원 졸업
- * 예장(개혁총연) 경기노회장
- * 총회신학연구원 이사장
- * 한국전도훈련원 원장
- * 세계선교센터 원장
- * 국제처유교회연구원 원장
- * 한국부흥사회의회대표회장
- * 남서울 축복교회 담임

- ◆ 전도사 시혜 강도사 안회 목사안수
- ◆ 1년 4학기 병행없이 조기졸업
- ◆ 타신교회 졸업자 상당수 목사안수
- ◆ 장로 및 사모님은 3학년으로 편입학
- ◆ 초교과 신학원생, 수시입학
- ◆ 일반대학 졸업자는 4학년으로 편입학
- ◆ 전원 장학제도(1학기당 10만원)
- ◆ 대한예수교장로회(한기총 가입교단)
- ◆ 인터넷 통신으로 수업가능함
- ◆ 총회신학연구원 WWW.7777.or.kr

문의 : 032) 342-7171, 010-3224-2345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상동 317-6 지하철 중동역 2번출구 앞

축복부활 임마누엘 선교교회

현 병 우 목사



임마누엘 영성원
☎. 011-9710-9190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상동 420-1

축복부활 성서하나님의교회 (the Church of God of Prophecy Korea) (이천성서수련원)

- 원로목사 : 이 철 재 감독 (Btshop)
- 담임목사 : 이 정 민 목사 (Minister) www.scogop.net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행 1:8절)

생명의 양식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고후 3장 17절)

예 배 안 내	요 일	시 간	장 소
주일 예배	주 일	오전 11:00	본당 (2층)
찬양 예배	주 일	오후 3:00	이천 수련원
유치부 예배	주 일	오후 1:30	기도실
초등부 예배	주 일	오후 1:30	본당 (2층)
중 · 고등부 예배	주 일	오전 9:00	지하 성전
청년대학부 예배	토요일	오후 6:30	지하 성전
스페인어 예배	주 일	오후 1:30	지하 성전
새벽 기도회	매일(월-금)	오전 5:00	지하 성전
수요 기도회	수요일	오후 7:30	지하 성전
금요 기도회	금요일	오후 9:00	지하 성전
2시 기도회	매일(월-토)	오후 2:00	기도실

서울시 광진구 화양동 127-3호 [02-465-4090]
성서수련원 [이천 031-634-3590]
부설 : 새생명 어린이집 [02-464-3107]

「사랑과 행복 함께 나누기」행사

사랑과행복나눔재단, 서울과 강원도 대백
전라북도 전주를 시작으로
전국적으로 위גיע층 지원 사업 전개

저소득층의 생계비, 의료비 지원, 다문화가정과 법률 지원, 집수리와 전국의 지역아동센터의 시설 개·보수를 통해 사랑과 행복을 전하는 사랑과행복나눔재단(이사장 조용기 목사)은 유래없는 전세제적인 경제불황으로 인해 생존자들에 위협을 받고 있는 빈곤가정 및 취약계층을 돕기 위해 팔을 걷어 붙였다.

본 재단은 작년 3월 창립하고 지금까지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지 못한 취약계층에게 도움을 전하고 있는 손길을 전국적으로 넓히고자 한다.

지난 3월 8일 여의도순복음교회에서 재단 1주년 행사로 진행된 「사랑과행복 함께 나누기」행사는 이러한 전국적인 사업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다. 앞으로 15일과 22일(일요일)



에 2차례에 걸쳐 더 실시한 후, 자원봉사단과 함께 전국의 소외된 지역을 직접 찾아 봉사활동과 생계비·의료비·집수리·다문화가정·법률지원 및 무료건강검진(검진차량)을 진행할 예정이다. 현재 강원도 대백과 전라북도 전주에 실시됨을 과전, 지자체와 함께 나눔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적극적인 일자리사업도 함께 진행한다. 작년 여름에 마포노인종합복지관과 함께 한 바



있는 “어르신에게 일자리를 드립니다”의 사업을 이번 행사에 연이어 전개하여 더욱 많은 분들에게 자립할 수 있는 기회를 줄 것으로 예상된다. 대상은 근로의욕을 가진 60세 이상의 어르신이며, 구인 대상은 노인인력을 필요로 하는 업체 관계자이다(구인/구직 모두 개설).

지난 8일 여의도순복음교회 광장에서 시작된 첫날 행사에서는 약 5백여명의 성도들이 생계비 및 주택개보

수 지원 등을 신청해 어려운 경제사정을 실감케 했다. 한편 현장에 마련된 모금함에 성금을 기부하고 정기후원을 신청하는 후원자들의 사랑의 열기도 뜨거웠다. 매달 1만원을 약정한 후원금(30, 여)성도는 “경제위기 시대에 교회가 어린이나 사회적 약자에 더 큰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동계성회 성료...전세계로 성령의 열기 확산



김삼환 목사



윤석전 목사



오늘 23일부터 26일까지 관동신수양관에서 금강리회 개회한 제39차 목회자부장영역세미나에서 문득받은 모습. 이 세미나를 끝으로 2개월간의 2009년 겨울을 하나님께 봉헌 가운데 모두 마쳤다. / 사진 조종익목사 제공

39차 목회자세미나, 샌프란시스코 목회자 50여 명과 세계 각국 선교사 참석 성황

제39차 초교파목회자부장영역세미나가 2월 23일부터 26일까지 3박 4일 동안 수원원동산수양관에서 은혜 가운데 개최되었다. “당신의 목회에 영적 혁명을 일으켜라”라는 주제로 미국 샌프란시스코 지역 한인교회 목회자 50여 명을 비롯한 해외의 목회자와 선교사들을 비롯한 5천여 명의 목회자부부가 참석하여

성황을 이뤘다.

특히 첫날 개강예배의 강사로 김삼환 목사(예장통합 총회장, 한국기독교 교회협의회 대표회장, 명성교회 담임)가 초청되어 목회자의 영성과 교회연합을 설교함으로써 한층 높아진 목회자세미나로서의 위상을 느낄 수 있었다. 주강사인 윤석전 목사는 성경 이외의 인본주의

적이고 세속적인 목회방법의 유혹을 버리고 성경적이고 영적인 방법으로 하나님과 신뢰를 회복하는 목회, 영적 권위를 회복하는 능력 있는 목회를 할 것을 강조하였다. 또한 24일, 25일 오후예배에는 예수생애부흥사회 대표회장인 최영근 목사(양원장로교회)와 권오성 목사(큰빛교회)가 목회부흥사제를 소개하는 시간도 가졌다. 목회자부장영역세미나를 끝으로 2개월간의 동계성회 일정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모두 마쳤다. 올해로 설립 23주년을 맞는 연세중앙교회 역사가 곧

원동산수양관 역사라고 할 만큼 오늘날 원동산수양관의 늘어난 부흥운동은 하나님께서 연세중앙교회를 그 일을 위해 쓰셨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한 시대에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를 통해 제한없이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원동산수양관성회를 통해 직접 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앞으로는 하나님이 쓰시는 교회가 되도록 기도해야 할 것이다.

개척교회의 훈훈한 이야기 (탐방)



대한예수교장로회(개척)대흥교회 권종근 목사(65)가 개척하고 있는 서울 마포구 대흥동 32-17 카리스B/D 4층 교회본당, 아담하게 시설을 갖추고 곳곳에 권목사 내외가 힘써 기도하며 봉사하는 흔적들이 보인다.

본지와와의 만남에서 권 목사는 자신이 소명을 받은 것과 앞으로의 목회비전을 이렇게 말한다. 저는 목회자가 되기 전에 서울 00교회의 장로로 시무하고 있었습니다. 장로로서 교회를 섬기며 충성하고 봉사하면서 사업에 전념하려고 했습니다. 당시 종로에서 귀금속 사업을 경영하고 있었고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경영하고 있던 귀금속 사업장이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심적으로 많은 좌절과 실망감에 방황하던 중 하나님 앞에 두 무릎을 꿇고 매달려 기도하는 중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것이 신학을 하겠다는 결심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귀금속 사업을 정리하

고 신학공부를 하고, 오늘의 대흥교회를 개척을 하게 되었고, 목사임직을 받은 것도 5년째 접어들고 있습니다. 또한 나이 들어 신학을 나와 교회를 개척하는 것도 그리 쉽지가 않았기에 기도를 많이 하게 되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외에 다른 것은 없다고 봅니다. 제가 어렵고 힘들었을 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만 바라보라”고 말합니다. 그 말씀이 내게는 힘이 되어주었고, 말씀대로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사역하고 있습니다. 현재 80세가 넘는 고령의 할아버지 할머니가 주일날 한번도 빠지지 않고 출석하고 계시며, 큰 아들 내외와 자녀들, 작은 아들 내외와 자녀들, 본 교회를 출석하고 있고, 권사님들과 협동 목사님 두 분과 전도사님 등이 출석하고 있습니다. 큰 교회처럼 웅장하거나 화려함은 없지만 천하보다 귀한 한분 한분의 영혼을 너무나 사랑하고 있기에 저는 목회에 큰 보람을 느낍니다.

성도들 모두가 한 가족처럼 사랑스럽고 예배가 끝나면 둘러앉아 얼굴과 얼굴을 마주보며 식사를 나누는 것이 그렇게 아름답고 자랑스러운 사랑스러울 수가 없습니다. 저는 나이 들어 신학을 나왔고, 또는 젊은 사람들처럼 학문적으로도 많이 배우지 못해 항상 부족해서 설교를 할 때도 고민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를 더 많이 하게 됩니다. 글구 나의 목회비전도 모든 것을 다 주님만 의지합니다. 인간의 힘으로도 지식만으로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기에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나아가겠습니다. 이것만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목회비전이요 방향이요, 계획이요, 오직 하나님 말씀 중심에 서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영적성장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며, 우리 대흥교회 표어처럼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전하는 것을 전무하리라”는 것에 있습니다.

교회를 염려케 하는 일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성령의 강림으로 시작된 신약 교회의 역사가 2000년이 된다. 교회는 그 긴 세월동안 세계도처에서 많은 박해와 시련을 견뎌 왔다. 이단들의 도전과 타 종교와 세상 정치적 권력의 위협과 무수한 박해를 통과해 왔다. 그렇다면 교회가 소멸하지 않고 지금까지 존재하게 된 것은 무슨 이유 때문일까?

물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진리의 말씀 위에 세워진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로 지속가능한 일이었다. 거기에서 교회가 가진 정체성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것은 말씀에 근거하여 확립된, 교회를 지탱하고 있는 진리를 말한다.

그런데 최근에 타 종교 지도자의 별세(선종)와 관련하여, 기독교의 근간을 흔드는 말들이 기독교 지도자를 통해 나왔다. “로마 천주교가 큰 집”이라는 발언, 로마 천주교 신부에게 “우리의 선한 목자여, 우리 위해 기도해 주옵소서”라는 고백을 한 것이다. 이는 외교적 수사(修辭), 문학적 표현이

란 변명으로 끝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한국교회의 위기를 말하는 분들이 있다. 그 위기는 두 가지이다. 하나는 삶으로 실천하지 못하는 윤리적 문제, 또 하나는 자기를 지탱하며 세워주는 종교적 정체성을 모르는 교회의 문제이다. 최근에 한국교회에서 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전자(前者)일 것이다.

많은 국민들의 추모를 받은 그 지도자가 속한 종교에 대한 국민적 정서에 편승하여, 단수(段數) 높은 발언으로, 그 종교와 우리 기독교가 서로 무관하지 않다는 의미로 표현한 것일까?

타 종교를 말하는 조심스럽지만, 역사적으로 볼 때 그 종교에 의해서, 말씀대로 믿고자 했던 기독교인들이 받은 심한 박해는 필설로 다 표현키 어렵고, 성경 내용과 다른 이교적인 교리와 폭거 때문에 종교개혁이 일어난 것은 모두 아는 사실이다. 그래서 성경 말씀으로 돌아가고, 그 종교개혁의 정신으로, 살아가자는 것이 오늘날의 기독교(개신교)가 아닌가. 교회는

사람에 의해서 세워지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 구속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과 성령의 역사 속에서 이뤄지며,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일하신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지 않으면 내 치실 수도 있다는 것이 성경의 교훈이다. 말을 잘못하여 실패한 사람들의 사체들은 성경에 많다.

한국교회는 어느 때보다도 교회가 지상에서 갖는 시대적 사명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 내부의 철저한 신앙적 삶, 그리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기독교에 대한 분명한 정체성이 확고하지 않으면 교회가 위기를 맞게 된다. 다시 말하거나와 교회의 문제는 환경의 문제이거나 외부의 도전이 아니라 지도자들의 문제이며, 진리에 기초한 신앙고백이 아니거나, 고백되어진 대로의 삶이 아닌 것에 가장 큰 원인이 있다. 인생은 짧으나 주님의 교회는 영원하다는 진리를 안다면, 교계 지도자들은 요한처럼 “나는 쇠하여도 주님은 흥해야 한다”는 겸손한 고백적 삶이어야 할 것이다.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할렐루야! 작은 예수 선교회

2005년부터 지난 4년간 비가오나 눈이오나 열악한 환경에도, 역경을 딛고 변함없이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환경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컸습니다. 또한 지극한 기도와 봉사, 물질 등,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신 모든 분에게도 감사드립니다. 작은 예수 선교회는 하나님의 은혜에 힘입어 종묘공원에서 모든 이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함을 받는 역사가 있기를 바라고 열심히 될 것입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예배 : 매주 수, 금요일 1시
장소 : 종묘공원 매표소 옆 술밭

작은 예수 선교회 양현모 목사 전화 : (02)764-1161



한국의 전통 악기인 장고와 전도와 선교현장에서 아름답게 복음전하는 도구로써임받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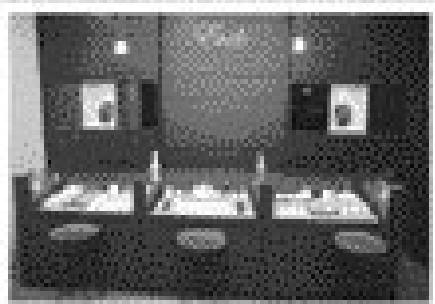
“승리의 복소리가 되게 미소서”

모집

- 찬양하며 복음전하고자 하는 분
- 사모하고 기도하는 분
- 사명이 있는 분 환영합니다.
- “소고쳐며 춤추며 찬양할찌어다”
- “할렐루야”



국악, 찬양, 율동 소영 목사
종묘공원 전도·교도소 선교
양노원, 노인대학선교



JTNTV방송(지저스타임즈)이 자신 있게 추천하는 토탈웨딩 에두알 (금,보석,다이아몬드 도매)

- ▶ 예물, 한복, 침구 신혼여행, 웨딩드레스를 한국에서 준비하실 수 있습니다.
- ▶ 금, 다이아몬드를 모든 분들의 가정에 도매가격으로 해 드립니다.
- ▶ 교회 임직 및 칠순·회갑 한복을 특별가격으로 모시겠습니다.
- ▶ 저희 매장에서 구입하시면 예산을 대폭 절약하실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토탈웨딩 에두알

손님을 VIP로 모시는 대표 : 정기남
직통 02-741-0032, 011-468-6574

문의전화 : 02-2272-5261, 735-5269
http://weddingetoile1.cafe24.com
서울시 종로구 인의동 48-26 경향문화재단 12층 전관
(1호선 종로5가역 12번출구 도보 3분)

잃어버린 영혼을 찾고 계시는 하나님의 마음!



얼마 전 러시아 단기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러시아 노보시비리스크에 도착해서 그 곳에 계신 선교사님과 합류하여 10시간이 걸리는 밤기차를 타고 알타이 공화국으로 들어갔습니다. 그곳은 8년째 우리나라 강원도 산골짜기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4일간의 말씀 사경회와 봉사활동을 끝나고 다시 10시간의 밤기차를 타고 노보시비리스크에 도착했습니다. 다 함께 기념 촬영을 하려고보니 소지품이 퐁팡 없어졌음을 발견했습니다. 여권이며 신분증이며 빌려갔던 디카며 모두 없어졌습니다. 순간 머리가 아찔하며 정신이 없었습니다. 기차에서 쓰리를 당렸는지 그 전인지머리가 운동 하얀 백지가 되면

러시아 단기 선교지에서

며, 신상조사와 새 여권이 나올 때까지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닐 것이라고 합니다. 같은 시간 알타이 교회의 아나톨리 목사님은 온 교인들과 교회를 살살이 찾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남은 일행은 차에서 기다리며 여권을 찾아 돌아오기까지 기도를 쉬지 않았다고 합니다. 낙심이 되어 이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제 자신의 부주의로 남은 일행에는 차질이 생겼으며 여러 사람들에게 피해를 끼친 것으로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또 한국의 교회도 생각이 났습니다. 가족들도 생각이 났습니다. 너무너무 애대는 순간이었습니다.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한 후, 이제 사람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을 때,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기로 했습니다. 2주간 러시아에 더 머물러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모든 사람들에게는 최후한 일이지만 순종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평안을 찾고 있을 때 전화가 한 통이 걸려 왔습니다. 알타이 교회의 아나톨리 목사님이었습니

참된 인생의 성공자 (창41:37-43)

가장 위대한 성공자는 하나님이 함께 하는 사람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는 사람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린다. 이 세상에 돈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이 없는 것이다. 하나님이 축복하시기만 하면 돈은 얼마든지 있다. 삼성의 이진희 회장이 가지고 있는 돈이 이회장의 돈이 아니라 하나님의 돈이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잠시 보관시켜 놓으셨을 뿐이다. 주인이신 하나님이 언제라도 찾아서 옮기고자 하면 옮기실 수 있다. 돈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성공한 것이 아니다. 은행은 돈을 많이 가지고 있다. 하지만 그 돈이 모두 은행 돈이 아니다. 고객이 맡겨 놓은 고객의 돈이다. 세상에서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 중에도 그 돈이 결코 자신의 돈이 아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함께 하는 사람에게 주시려고 그 사람에게 잠시 보관시켜 놓은 것일 수 있다. 그러므로 돈이 많다고 그 돈이 모두 자기 소유로 착각해두 안 되고, 돈이 없다고 나는 평생 가난뱅이 거지로 살 팔자라고 자신을 비관해도 안 된다. 진정한 부자는 돈을 가지고 꼭 써야 할 때, 필요할 때, 필요한 만큼의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필요 이상의 돈을 가지고 있는 것은 복이 아니다. 돈이 너무 많이 먹지는 대로 사업을 벌이고, 부정한 곳에 돈을 뿌리고 다닌다면 이것 역시 타락과 방탕의 저주다. 돈이 없어서 문제가 아니라 돈이

너무 많은 것이 문제다. 진정한 성공자는 하나님이 함께 하는 사람이다. 사용할 수 없는 수천 억 재물보다, 지금 당장 사용할 수 있는 가계수표 한 장이 더 소중하고 값지다. 우리는 사실 많은 돈이 없어 불행한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 쓸 돈이 없어 불편한 것이다. 옛날에 부모님 한테 용돈을 타서 쓸데 가끔씩 잔돈이 없어 큰돈을 받을 때가 있다. 그럼 당장 달려가서 돈을 바꾼다. 내가 쓸 수 있는 돈 만큼 채우고 내 돈이 아닌 것은 부모님께 돌려 드린다. 그리고 내 몫의 돈 만 가지고 있으면 즐거분하고 편하다. 지금 당장 쓸 돈은 많은 돈이 아니다. 우리가 건강해 지는 것도 한 번에 수많은 보약을 먹는 다고 갑자기 건강해 지는 것이 아니다. 한 끼, 한 끼, 식사 때 마다 조금씩 영양분을 공급해 주는 것이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는 것이다. 하루아침에 일확천금을 손에 쥔 사람들 중에 끝까지 성공 한 사람들이 없다고 한다. 거의 다 얼마 가지 못해 폐가망신 한다. 부동산, 주식, 복권, 경매, 도박, 등 일시에 큰돈을 거머쥔 사람들 중에 진정한 성공자가 없다. 대부분 우울증, 불면증, 스트레스, 각종 신장질환등에 시달리고 있다. 그들에게 진정한 평안이 없다. 하루하루의 삶이 긴장과 불안의 연속이다. 인생의 행복과 성공은 삶의 누림에 있다. 성경역사를 통 뚫어 요셉만 성공한 사람이 없다. 요셉은 집에



평안교회 담임
장승헌 목사 (본지 논설위원)

서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 쫓겨났다. 그래도 그는 성공자다. 자신을 쫓아낸 형들을 미워하거나 원망하지 않았고,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지 않았다.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이다. 요셉은 보디발 장군의 집에 종으로 팔려갔어도 성공자다. 왜냐하면 요셉은 그 가문에서도 결코 자신을 실패한 인생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요셉은 보디발 장군의 아내에게 억울한 누명을 뒤집어줬어도 성공자다. 요셉은 감옥에 갇혔어도 역시 변함없는 성공자다. 아무리 극한 상황에서도 결코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거나 탄식한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는 자가 진정한 성공자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복이고, 성공이며, 구원이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고 계심을 믿는가? 하나님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을 사랑하는 자와 언제나 함께 하신다. 할렐루야!

주 안에서 기쁨을 누리자 (요일 1:4)

사람이 기쁘게 살면 안될 일도 없습니다. 어느 공동묘지 관리인에게 매일 편지와 우편함이 배달되어왔습니다. 꽃값을 보내왔는데 이젠 자기 아들의 묘에 매일 꽃을 놓아달라는 간절한 사연과 함께였습니다. 수개월을 이렇게 해 왔는데, 어느 날 이 관리인에게 그 부인이 직접 꽃을 들고 찾아온 것입니다. 의사의 말이 자기는 이제 몇 일 밖에 살지 못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손수 자기아들의 묘에 꽃다발을 주고 싶다는 취지입니다. 이 말을 들은 묘지 관리인은 이 부인에게 "부인이 일은 심히 유감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유감이라뇨?" "유감이지요" "부인이 묘지에 서는 당신의 아들을 비롯해서 어느 누구도 이 꽃의 향기를 맡을 수도 또 아름다운 꽃을 눈으로 볼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는 살아서 이것을 기뻐하고 즐길 사람들이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이 말을 들은 부인은 아무 말 없이 섰다가 가벼렸습니다. 그리고 몇 달이 지났습니다. 그 부인은 꽃다발 하나를 들고 이 관리인을 찾아온 것입니다. 그 부인의 하는 말 "당신 말이 옳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기쁘게 했더니 내가 기뻐했습니다. 내가 기쁘니 내 병이 언제 나았는지 모르게 나아졌습니다. 나는 이제야 삶의 목표를 찾았고 삶의 기쁨을 알았습니다."

기뻐해야 할 이유 첫째 :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기뻐해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이 그렇다면 그런 것이다. 아멘 "하나님이 그렇다면 그런 것이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살전5:16-18에 "항상 기뻐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가 기뻐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항상 기뻐하나 하겠지만 우리는 주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아바 황수관 박사의 '부교감신경을 개발하라' 이런 말

을 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생선장수 예를 들면서 억지로라도 해보라 그러면 그렇게 되어 진다. 이것이 부교감신경을 개발 한다는 것입니다. 억지로라도 웃어보는 것입니다. 웃어볼까요? 하하 하 기뻐지는 것을 느끼죠?

빌4:4에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바울이 로마감옥에서 편지를 쓰면서 한 말입니다. 전도하다가 감옥에 갇혀서 고통을 당하면서도 자기는 기뻐하며 빌립 보교회 성도들에게 기뻐하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이런 주님의 뜻을 헤아린다면 어떤 상황에서든 기뻐하지 못할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말로 그 고통스런 상황에서 기뻐하는 것은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에 기뻐합니다. 주님을 위해 고통당하는 것을 기뻐한 것입니다. 사도바울자신은 골로새서1:24에 이

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 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주님을 위하여 받는 고통이니 기뻐하고 또 성도들이 은혜 받고 성도들이 자기 때문에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에 감사하며 기뻐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즐겨워하셨다고 히브리서 12:2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의 앞 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 치아니 하시더니 하나님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우리는 상황을 보고, 현실을 보고, 형편을 보고, 이런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뜻이라면 그저 기뻐해야 할 것입니다. 전북지사장 박주성 목사

사업을 통해 헌신 봉사하는 삶



건강식품을 개발해 수익금은 교회 건축과 북한결식 어린이 돌기에 나서 양향숙 집사는 오랫동안 전국팔도를 직접 발로 뛰며 건강식품을 홍보, 판매함으로써 사회적, 경제적으로 성공한 사람이다. 지난해 하나님께서는 양향숙 집사에게 오랜 노하우를 바탕으로 하여 새로운 하나님의 일인 두 가지로 맡기셨다고 한다. 하나는 성전건축과 선교에 힘쓸 것과 또 하나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 밤낮으로 애쓰시는 목회자와 성도들의 건

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건강식품을 개발하여 보급할 것을 응답 받아 해피평화발효홍삼인 건강기능성 제품으로 인생을 새롭게 출발하였다. 해피평화발효홍삼은 인삼을 아홉 번 찌고 아홉 번 말리는 구중구포 방식으로 50일간 숙성시켜 복분자, 산사자, 토사자, 오미자, 구기자 추출물과 14종의 한약재를 추가하여 만들어진 건강기능성 제품이다. 해피평화발효홍삼 판매 수익금 십일조를 사)국제사랑재단(북한결식아동돕기 및 선교재단에 후원하고 있으며 현재 출석하고 있는 교회(북한교회)를 2년 전에 세워 헌신과 봉사로 섬기고 있다. 현재 교회가 든든히 세워

져 가고 있는 것과 홍삼을 통한 많은 사람들의 건강증진과 긍정적인 반응을 통하여 집사님의 주변이 웃음과 행복이 퍼져감으로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 역사, 인도하심을 날마다 감사와 찬양의 향기를 올리고 있다. 마게 도나와 유럽의 최초의 회심자인 루디아의 교향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며 복음의 확산이 왔듯이 한 사람, 양향숙 집사의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함으로 가진 전부인 옥함을 깨뜨림으로 그 향기가 온 땅에 퍼져 북한의 결식아동에게까지 전달되어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과 행복한 웃음소리를 기대하여 본다. 루디아 선교회 (www.hongsaa.co) 양향숙 집사

대전에서 라영수기자

대한예수교
장로회

주천성교회

축
부활

예배모습

담임 권세웅 목사

예배안내

구분	시간	구분	시간
주일 낮 예배	오전 11:00	새벽 기도회	새벽 6:00
주일 오후 예배	오후 1:30	유초등부 예배	오전 9:00
수요 저녁 예배	저녁 7:30	중고등부	주일 오후 3:30
금요 철야 기도	저녁 9:00	청년회 모임	토 저녁 8:00

451-806 경기도 평택시 팽성읍 신궁리 245-4

☎. 031)656-5830

H · P 010-8585-9137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령충만한 교회

참 좋은 교회로 소개합니다.

축
부활

Jesus Christ

오산반석교회

담임목사 : 김능주

찾아오시는 길

미로 스타터

동부 7교차로

주천성교회

유치부

대림 이화천 세성 이화천

이화천

오산반석교회는

행복한 인생으로 삶을 설계하는

인생 디자인센터입니다.

1. 사람을 세우는 교회입니다.

2. 행복을 만들어가는 교회입니다.

3. 인생을 클리닉하는 교회입니다.

4. 신앙으로 양육하는 교회입니다.

예 · 배 · 시 · 간

주일 새벽 예배	오전 06:00	주중 새벽 예배	오전 05:30
주일 오전 예배	오전 11:00	금요 기도회	저녁 8:30
주일 오후 예배	오후 2:00	주일 학교	오전 9:20
수요 예배	오후 7:30	WIIWA영재교육	오후 1:00(토)
일과 파종	오후 6(주일)	중 · 고등부	오후 3:30(주일)
디사이플스	오후 7:30(화)	청년부	오후 7:30(토)

행/복/인/사/람/들 · 예/수/인/사/람/들

대한예수교장로회

오산반석교회

오산시 원동 845번지 양우프라자 8층 http://www.반석교회.kr

Tel : 031)378-9349 신앙상담 : 010-2378-9349

대한예수교장로회

축
부활

핵심교회

www.haeksim.net

Tel. 02)430-9107

Fax. 02)401-7954

서울시 송파구 거여2동 251-42호

(효성아파트 205동 앞)

이 선 목사

예배안내

기관	시간	장소
장년부	새벽 5:00	대예배실
	1부 주일 오전 7:30	
	2부 주일 오전 9:00	
	3부 주일 오전 11:00	
	주일찬양예배 오후 2:00	
수요일 저녁 7:00		
금요일 오후 8:00		

주일학교예배안내

기관	시간	장소
유치부	주일 오전 9:00	유치부실
유년초등부	주일 오전 9:00	어린이성전
중고등부	주일 오전 9:00	중고등부실
	주일 오후 3:00	
청년부	토요일 오후 7:00	제1교육관
셀장대학	금요일 오전 10:00	제2교육관
새벽예배	매일 새벽 5:00	대예배실

건 · 강 · 한 · 교 · 회

축
부활

한국기독교장로회

홍성제일교회

꺾
모이고
꺾
매우고
꺾
정함까지!

담임 오승철 목사

041)634-0441(사무실)

041)633-9146(목양실)

충남 홍성군 홍성읍 옥암리 952번지



핑크 출신 연기자 이진의 별명은 '연예인 집사'

가수 핑클에서 연기자로 변신. 한층 성숙해진 모습으로 사랑을 받고 있는 연기자 이진의 별명이 '연예인 집사'인 것으로 밝혀졌다. 믿음이 신실할 뿐 아니라 전도에도 열심인 때문이다.

"3월과 9월 특별새벽기도는 빠지지 않았다"

이효리, 옥주현, 성유리와 함께 인기 여성그룹 핑클의 멤버로 활동하다 연기자의 길로 접어든 이진이 CTS기독교 TV <내가 매일 기쁘게>에 출연, 자신이 만난 하나님에 대한 간증과 함께 명성교회 성가대원으로 섬기며 행복한 믿음을 생활을 하고 있는 최근 근황을 전한다.

모태 신앙으로 태어난 그는 "신앙을 무엇보다 중요시 여기는 부모님에 의해 새벽기도를 다니며, 믿음이 깊어진 것 같다"고 고백했다.

특히 그는 "3월과 9월 특별새벽기도는 빠지지 않았다"면서 "그렇게 빠지지 않고 다니다보니, 새벽기도 중 더 빨리 기도 응답을 해주시는 하나님을 알고서는 더욱 빠질 수 없게 됐다"고 밝혔다. "핑클 시절 때도 특별새벽기도만큼은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일정까지 허락하셨다"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다.

그는 또 명성교회에 다니며 성가대로

섬기는 이야기도 전했다. 가수에서 연기자로 전환하기 전, 실 때 나머지 멤버는 한창 텔레비전에 나오고, 활발히 활동했는데 혼자만 쉬고 있어서 굉장히 불안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은 그때 나를 훈련시켜주셨다"면서 "가수시절 겸손하지 않고, 감사하지 않는 점을 반성하고 나서 봉사하고자 하는 마음이 들어 성가대를 시작했다"고 말했다. 당시에는 굉장히 힘들었지만, 이제와 보니 연기자로 전환할 때 일이 쉽게 풀렸다면, 지금도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할 것이라는 설명이었다.

'연예인 집사'라는 별명에 대해서는 "과찬"이라며 "그렇게 많이 전도하라고 붙여진 것 같다"고 겸손히 말했다. 이어 그는 "실제로 전도를 할 때 직접적으로 다니라는 말보다는 늘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보여주려고 노력한다"고 밝히 '연예인 집사'다운 모습을 보여줬다.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생명의 양식을 먹고 있는 연기자 이진의 순수한 믿음을 예뻐하셔서, 많은 계획과 훈련을 통해 더 크게 쓰시는 하나님의 뜻과 그러한 뜻에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그녀의 믿음을 만나볼 수 있는 <내가 매일 기쁘

게>'이진 편'은 오는 25일 오전 10시 10분(본방)과 27일 오전 0시 30분에 방영된다.

(속취본 중에서)

Q 가수에서 연기자로 전환했는데 힘든 점?

-주위의 편견으로 힘들었다. 그러나 항상 내 안에 중심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늘 붙잡아 주셨다. 그리고 좋은 연기자선생님을 붙여 주셨다. 난생 처음 사극을 8개월 동안 촬영했다. 좋은 역할을 할 수 있어서 감사했다. 내가 목소리 톤이 높으니까 낮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능력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하다.

Q 언제부터 신앙생활을 시작했나?

-모태신앙이다. 늘 하나님께서 살아 계신 것을 알고 있다. 중학교 시절, 부모님에 의해 새벽기도를 다니며, 믿음이 깊어진 것 같다.

Q 새벽기도를 잘 다닌다고

-3월과 9월 특별새벽기도는 빠지지 않았다. 중학교 시절부터 부모님에 이끌려 다녔다. 특히 3월은 새 학기라 부를 예뻐하셔서, 많은 계획과 훈련을 통해 더 크게 쓰시는 하나님의 뜻과 그러한 뜻에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그녀의 믿음을 만나볼 수 있는 <내가 매일 기쁘게>'이진 편'은 오는 25일 오전 10시 10분(본방)과 27일 오전 0시 30분에 방영된다.

을 알고서는 지금까지 절대 빠질 수 없게 되었다.

Q 부모님은 어떤 분?

-언제나 힘이 되시고 기도로써 후원해주시는 든든한 후원자이시다. 어머니의 경우 매일 새벽기도를 나가시면서 나를 위해 기도해주시다. 그 기도 덕분에 내가 축복을 받을 것 같다. 너무나 사랑한다. 아버지 또한 3월과 9월 특별새벽기도는 절대 빠지지 않으시고 신앙의 본보기가 되신다.

Q 형제 관계는?

-오빠 한명과 언니 한명이 있다. 두 명다 결혼하여 출타중이다.

Q 명성 교회에서 성가대로 섬기고 있다

-섬길 수 있어서 정말 감사하고 행복하다. 가수에서 연기자로 전환하기 전, 신 적이 있었다. 그때 핑클의 나머지 멤버는 한창 텔레비전에 나오고, 활발히 활동했는데 나 혼자만 쉬고 있어서 굉장히 불안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때 나를 훈련시켜주셨다. 가수시절 겸손하지 않고, 감사하지 않는 점을 반성하고 나서 봉사하고자 하는 마음이 들어 성

가대를 시작하였다.

Q 언제 하나님을 만났나?

-새벽기도 할 때면 항상 위로해주시는 하나님을 만났다. 어떤 소망을 나에게 품고 계신지도 알려주신다. 또 교만하지 않게 항상 늘 낮은 자세로 임하게 하신다.

Q 가수시절 굉장히 바빴는데, 다른 멤버들은 활발히 활동한 적이 있었다. 그때 혼자 쉬면서 힘들지 않았나?

-가수를 접고 바로 연기자 생활을 했다. 다른 알지 못했을 것이 많았을 것이다. 우선 기도하는 시간이 많아졌고, 하나님께서 나를 훈련시키시는 시간으로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 했다.

Q <문미연>이 무엇인가?

-문화, 미디어, 엔터테인먼트 관련 종사자들의 크리스천 모임이다. 작년 '지저스페스티벌'을 개최하였는데 그때 많은 깨달음을 얻었다. 그 전까지는 항상 내 위주로 기도를 하였다. 언제나 나를 위해서만, 내에 대해 간구하는 것만 기도 드렸다. 하지만 페스티벌 이후 남을 위해 기도해야함을 깨달았고 중보

기도를 하게 되었다. 그동안 이기적인 신앙을 회개하고, 주위의 낙약한 연에 인친구들을 위해 기도하기 시작했다. <지저스페스티벌>때 유리와(성유리)40일 금식기도를 드렸었다. 금식 중 먹고 싶은 욕구가 많았는데 하나님께서 많이 도와주셨다.

Q 연예인 집사란 별명이 있는데

-과찬이다. 그렇게 많이 전도하라고 붙여진 것 같다. 방송활동을 하다보면 술자리를 많이 갖게 되는데, 그때마다 강력하게 교화 다지기 때문에 못 먹는다고 선포한다. 실제로 전도를 할 때 직접적으로 다니라는 말보다는 몸으로 보여주고, 결에서 보면서 믿는 것 같다. 나에게 '넌 고민이 뭐야?'라고 물을 정도로 나에게 걱정이나 고민이 없어 보인다고 한다. 항상 주님께서 예비해주시기 때문에 걱정이 없다고 말한다. 늘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보여주려고 노력한다.

Q 술자리도 많이 갖게 될텐데, 어떻게 방어하나?

-술자리 전 강력하게 말한다. 데뷔 초에는 다들 어르신들이라 굉장히 건방



▲간증 중인 이진, 뉴스미션

지게 보신 분도 계신데, 하나님께서 그런 것도 다 풀어주셨다. 이제는 다들 잘 알아서 사이다를 편한다. 어떤 크리스천들은 술을 마시면서 성경에 취하지 말라고만 나왔다고 권하기도 하는데 그것은 분명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을 것이다.

Q 어릴 때 신앙은 어땠나?

-중학교 때부터 어른 예배를 드렸다. 아버지가 군인이셔서 부대 내 교회를 다니며 믿음을 키워왔다.

Q 추천할 신앙서적?

-얼마 전 '영적 리더십'이라는 책을 선물 받았다. 책을 통해 진정한 리더십이 무엇인지를 깨달았다.

Q 좋아하는 찬양?

-'사슴에 봄바람'이라는 찬양을 좋아한다.

Q 말씀묵상은 어떻게 하나?

-하루 1장 이상 읽으려고 한다. 그러다보니 항상 읽는 것이 습관이 된 듯하다. 또 시편을 가까이 하면서 묵상한다.

손범수 "궁극적인 목표...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는 것"

제22회 기독교문화대상 시상식에서 손범수 아나운서 방송 부문 수상



객관성과 수상자들의 문화공헌도를 고려해 선정했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손범수 아나운서에 대해 "KBS TV <아침마당>에서 진술하고 인간미 넘치는 진행을 통해 시청자들에게 친근하고 부담없는 이미지로 다가간 것을 높이 평가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시상식에서는 "무지컬 부문에 <지저스 지저스>의 연기자 최선자·음악 부문에 소프라노 성악 연주자·음악 부문에 소프라노 성악 연주자 모범적인 방송인으로 인정받고 있는 손범수 아나운서가 방송 부문 기독교문화대상을 수상했다. 손범수씨는 수상 소감에 나서 "올해가 방송을 시작한 지 20년을 맞는 해인데 하나님께서 더욱 분발하라고 채찍 대신 이렇게 큰 상을 주시는 것 같다"면서 "방송을 하면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방송생활을 하는 동안의 저의 목표인데 이번 수상이 다시 한번 도전과 돌아봄의 계기로 작용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날 시상식에서는 크리스천으로서 모범적인 방송인으로 인정받고 있는 손범수 아나운서가 방송 부문 기독교문화대상을 수상했다. 손범수씨는 수상 소감에 나서 "올해가 방송을 시작한 지 20년을 맞는 해인데 하나님께서 더욱 분발하라고 채찍 대신 이렇게 큰 상을 주시는 것 같다"면서 "방송을 하면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방송생활을 하는 동안의 저의 목표인데 이번 수상이 다시 한번 도전과 돌아봄의 계기로 작용할 것 같다"고 말했다.

20년 전 아나운서 시험을 앞두고 하나님께 "저를 아나운서 자리에 세워주시면 많은 이들에게 당신의 사랑을 전하겠습니다"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부족한 자의 간구를 들어주셔서 수월하게 아나운서 시험을 통과할 수 있었습니다.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이

를 석 자를 세상에 알리게 된 지금, 스스로 돌아봅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진정 응답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허락한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는지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성의 자랑을 위해 정진없이 달려온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방송을 할 때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저는 방송에 있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진실함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침마당>과 같이 게스트가 많이 출연하는 프로그램에서는 더욱 진솔한 모습으로 다가가려고 노력합니다. 제가 진술한 모습으로 다가가 때 출연자들도 마음을 열고 그들의 이야기를 진솔하게 꺼내놓는 것을 봅니다. 이번 수상도 <아침마당> 진행을 통해 사람들의 이면을 진솔하게 이끌어낸 점이 높이 평가된 것 같습니다.

크리스천 마인드를 방송활동에 어떻게 적용시키고 있는가?

저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기 전 출연자들을 위해 늘 기도를 합니다. 또한 방송을 진행하면서 저를 통해 출연자들에게나 방송을 보는 시청자들에게 하

님의 선한 영향력이 흘러가길 마음속으로 간구합니다.

그동안 진행했던 프로그램들 중 기억에 남는 프로그램은?

제가 진행했던 프로그램들 중 특히 <아침마당>, <사랑의 리퀘스트>, <대즈 탐험 신비의 세계>등 교육적이면서 유익한 프로그램들이 기억에 남습니다. 저는 가족이 함께 봤을 때 거부감이 생기거나 눈살 찌푸리는 내용들이 아니라 건전하고 마음이 따뜻해지는 내용의 프로그램들을 진행하고 싶습니다. 그런 프로그램들을 통해 가족들 간의 대화의 장이 트이고 더욱 화목해질 수 있었으면 하는 소망입니다.

앞으로의 방송활동에 있어 마음가짐을 말한다면?

최근 힐러리 장관이 방한해 한 대학 강연에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 두 가지는 사랑하는 것과 사랑받는 것이다. 다른 것은 배경화면일 뿐이다'라고 한 말이 크게 공감이 있습니다. 저는 방송활동을 하며 지금까지 너무 많은 사랑을 받아왔는데 앞으로는 받은 사랑을 돌려주는 것이 제게 남겨진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칼럼

말의 신비함



본지 상임이사 권세능목사

미국 존스 홉킨스 대학병원에는 '신의 손'이란 별명을 가진 소아신경외과 벤 카슨 박사가 있습니다.

그는 오늘날 의학계에서 '신의 손'이라는 별칭이 전혀 어색하지 않을 만큼 세계 최고의 의술을 인정받고 있는 의사입니다.

1987년에 세계에서 처음으로 머리와 목이 붙은 채 태어난 삼쌍둥이를 분리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쌍둥이로 태어나 불행한 앞날이 예고되었던 파트릭 빈더와 벤저민 빈더가 카슨 박사의 수술로 인해 새 생명을 얻은 것입니다. 이 수술을 통해 벤 카슨은 '신의 손'이라는 별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신의 손을 가진 벤 카슨도 아주 어두운 성장기를 보냈다고 합니다. 어린 시절 그를 보고 지금과 같은 세계적인 의사가 되리라고 생각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벤 카슨은 디트로이트의 이혼으로 태어나 8세 때 부모의 이혼으로 편모생활에서 자라면서 불량소년들과 어울려 싸움질을 일삼는 흑인 불

량소년에 불과했습니다.

그는 피부가 검다는 이유로 백인 친구들 사이에서 따돌림을 당했고, 초등학교 때에는 항상 팔찌를 도둑아하는 지진이었습니

다. 초등학교 5학년 때까지 구구단을 암기하지 못했고 산수시험을 한 문제도 맞추지 못하여 급우들의 놀림감이 되곤 했습니다.

이런 불량소년이 어떻게 오늘날 세계 의학계에서신의 손이라는 칭송을 얻을 만큼 대단한 사람이 되었을까요?

어느 날 그에게 가자가 찾아와서, "오늘의 당신을 만들어 준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나의 어머니, 쇼나 카슨 덕분입니다. 어머니는 내가 늘 팔찌를 하면서 흑인이라고 따돌림을 당할 때도, 벤, 넌 마음만 먹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어! 노력만 하면 할 수 있어!"라는 말을 끊임없이 들려주면서 내게 격려와 용기를 주었습니다." 벤 카슨은 그의 어머니가 끊임없이 불러 넣어준 "노

력만 하

면 무엇

이든 할

수 있

다."

는 말에 사

로잡혀 중학교에 들어가면서부터 공부에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성적이 오르기 시작해 우등생이 될 수 있었고, 사우스웨스턴고교를 3등으로 졸업 했으며, 명문 미시간 대학 의대에 입학하여 '신의 손'을 가진 의사가 되었습니다. 빈민가의 불량소년, 팔찌 소년, 놀림과 따돌림을 받던 흑인 소년은 오늘날의 벤 카슨으로 변화시킨 것은 바로 그의 어머니가 해준 말 한 마디였습니다.

"벤, 넌 할 수 있어. 무엇이든 할 수 있어!"

말은 보이

지 않지만 무한한 창조력과 힘을 가진 인생 태도의 에너지입니다. 사람은 말의 열매를 먹고 삽니다. 말 속엔 크고 놀라운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2009학년도 1학기 신입입생 모집

하나님은 당신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당신만이 꼭 해야 할 일이기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음성이 아니면 당신이 만나지 않으면 계속 어둠 속에서 헤매는 양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당신을 기다리는 선지학교가 있습니다.

1. 모집과정

과 정	구분	수업연한	전형자격	비고
연구원	목회신학석사(M.Div.)	3년	4년제 대학교나 신학과 졸업자 및 동등 자격 인정자 ※ 신학 6년 이수자는 2학년에 편입	주간: 계절학기(여름, 겨울) 야간: 월, 화, 목, 금
	목회학석사(M.A.)	2년	4년제 신학교 졸업자 및 동등 자격자	
신 학 원	신학사(B.Th.)	4년	고등학교 졸업자 및 동등 자격 인정자	
	여교역자(B.Div.)	3년	고졸 졸업(예정자) 및 동등 자격 인정자	
	평신교교육과	2년	학력제한 없음, 졸업 후 신학과 입학자격 부여, 고졸자인 경우는 신학과 2학년에 편입	사회복지사 2급, 보육교사 2급 자격 취득
	사회복지학과	2년	고졸자	

2. 전형일정

원서접수: 연중 계속

원서교부: 본교 교무과 061)242-1617

3. 제출서류

입학원서, 주민등록등본 1부, 최종학력졸업증명서, 사진 4매

4. 특 전

1) 연구원 졸업 후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에서 목사안수 받을 수 있음.

2) 신학과 졸업생은 연구원 과정에 진학

3) 사회복지과는 전문학사 학위 취득 및 사회복지사 2급, 보육교사 2급, 캐어복지사(민간) 자격 취득

웨스트민스터 목포신학교

Westminster Mokpo Theological Seminary

신학교 학장: 조광표 박사(D.D.) 연구원 원장: 모상련 박사(Th.D.) 530-030 전남 목포시 연산동 1236-4번지 ☎ 061)242-1617

축 부 활

대한예수교 장로회

목포만나교회 목포신학교



담임목사 조 광 표

(530-350) 전남 목포시 연산동 1236-4번지

전 화 : 061)274-6461 / 학장실 : 061)242-1617

자 택 : 061)274-1808 / 핸드폰 : 011-631-1977

"경찰, 용산철거농성 진압은 선량한 시민을 보호 위한 것"

우선 희생자가 발생한 데 대해 고인에 대한 명복을 빕니다



경찰의 진압방식이 과잉이라고요?

안타깝게도 인명피해가 발생했지만 경찰특공대가 투입되기까지의 과정과 당시 현장상황을 언론을 통

해 들은 바에 의하면 결코 경찰의 진압이 과잉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미 알려진 사실처럼 용산 철거민 현장에서 새총을 만들어 놓고 인명을 살상할 수 있

는 골프공, 벽돌 등을 발사하거나 심지어 차량이 통행하는데도 무차별적으로 화염병을 던지는가 하면 그로 인해 상가 등에 화재가 발생하고, 극히 위험한 연산을 투척하여 선량한 시민에게 위협되는 행위가 수도 한복판에서 벌어졌습니다.

이는 광장이나 한적한 곳에서 벌어지는 불법행위와는 차원이 다른 폭력시위였다고 보여집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선량한 시민 보호를 소홀히 하여 더 큰 피해가 있었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이러한 점을 감안하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사회의 안녕과 질서를 위해 진압이 불가피했고 시민과 사회의 안전을 위해 당연히 진압이 되어야 하는 상황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이 과정에서 일부에서 문제를 삼고 있는 경찰특공대 투입은 전의경이나 일반 경찰관의 투입만으로는 진압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고도로 훈련된 경찰특공대를 투입해야 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이미 과격 폭력시위현장에 투입된 전례가 다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 위험한 상황에서 이루어진 일련의 사태를 놓고 경찰의 진압에 대해 왜곡시키거나 호도해서 이 나라 법질서가 바로 서지 않는다면 경제적 위기도 타개하기 힘들 것입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고 조속히 마무리 되어 안정된 사회 바탕 위에 경제위기 극복에 매진했으면 합니다.

본지 상임이사 박양우 목사

송기배 목사 "파워전도세미나" 가져

아버지학교 어머니학교를 통해 교회 부흥을 이루어 보라는 강사 송기배 목사



목동 주님의교회에서 1박 2일 "파워전도세미나"를 성황리에 가졌다. 파워전도세미나에서 송기배 목사는 요즘 아파트 문이 열립니까? "당동 당동"하고 벨을 눌렀을 때에 "누구세요" 하며 문을 열어 줍니까? 아파트 문이 열리지 않습니다. 전도하기 힘듭니다. "하지만 파워전도세미나의 참석자 여러분에게 아파트 문이 쉽게 열리는 노하우를 공개 하겠습니다". 요즘 전도세

미나 강사로 비어있는 날짜가 없을 정도로 바쁘게 움직이는 송기배 목사의 일정이다.

시간이 흐르면서 "하하하 호호호"여기 저기 웃음꽃이 활짝 피어오른다. [전도] 나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가득하다. 아버지 학교가 소개되고 어머니 학교가 소개되면서 아파트 문이 열리는 노하우가 공개되어 많은 사람들이 도전을 받았다.

파워전도세미나에 많은 참석자들은 도전을 받았다며 이렇게 말했다. "전도가 이렇게 쉬운 줄 몰랐어요" "새로운 전도법이네. 한번 도전해보고 싶어요" "세미나에 참석하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세미나에 참석해 많은 것을 깨닫고 만족했으며 도전받았다.

김광옥 목사 총재 및 대표회장 취임감사 예배



노방 전도 사역자 훈련원은 지난 2월 25일 오전 11시 서울 용산구 서계동 45-8 소재 민족사랑교회(유수영 목사)에서 김광옥 목사를 총재로, 백승길 목사를 대표회장으로 각각 추대하고 취임감사예배가 드려졌다.

이날 백승길 목사 사회로 예배가

진행되고 기도예도 권종근 목사가, 팩스 협찬양단의 특송에 이어 양성민 목사(서기)가 성경을 봉독, 김호일 목사(대표고문)가 "평을 기업으로 받고 천국가는 자 되는 길"이란 제하의 말씀을 선포했다. 이어 브리스치유찬양선교단의 찬양과 부총재 최준길 목사가 봉

헌기도를, 총재 김광일 목사가 취임사에 나섰다. 또한 정요섭 목사가 권면을, 부총재 유수영 목사가 축사를, 사무총장 고요한 목사가 노방전도 사역자 훈련원에 대해 취지를 설명과 광고를, 총재 김광옥 목사 축도로 마쳤다.

"1구좌 1만원 후원 천사가 되어주십시오."

농협 계좌 455030-56-005509 (예금주: 정기남)

The Jesus Times
www.JTNTV.kr

광고주를 찾습니다.

www.cpj.kr(인터넷뉴스)
크리스찬포토저널
www.JTNTV.kr

지저스타임즈 등 다양한 채널을 가지고 있어서 홍보효과가 뛰어납니다.

(배너광고, 팝업광고, 일반지면광고)

광고문의 광고국 : 02)407-6574
FAX : 02)763-0221

의학칼럼

우울증은 결코 정신과에서 디루어야 하는 병이 아닙니다!(1)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고전 4:20)는 말씀은 사도행전 당시나 혹은 그 후 초대교회 시절에만 해당되는 말씀은 결코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현대에도 유효하며 앞으로도 유효한 말씀이다.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말씀과 능력 ... 이러한 단어들은 어느 특정인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은 더더욱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는 모든 이들에게 유효한 말씀이며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아주 친숙하고 가까운 말씀이다.

교회사의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을 지배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왕성해지며 또 많은 이들이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된 것을 볼 수 있다. 거리의 부랑자들이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말씀으로 돌아오며 세상에서 말하는 패배자들과 죄인들이 말씀을 듣고 회심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이끌어 갔던 것들을 기억해 보면 말씀의 능력이 얼마나 크시며 죄인된 인간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얼마나 큰지 새삼 되새겨 보지 않을 수 없다.

교회의 영역과 세상 학문의 영역이 넓어지고 다양한 사조나 풍조들 그리고 사상들이 난무하는 속에서 교회는 자연스럽게 세상과 얼굴을 맞대고 세상을 바라보고 있으면서 세상의 것들을 흡수하고 또 모방하기도 한다.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금지하고 있는 것들도 학문이라는 이름으로 흡수하여 교회에 프로그램이라는 이름으로 심어서 사용하기도 한다.

세상은 물질만능주의나 헛된 철학이 정복하여 지배해 가고 있다면 그러한 것들의 영향이 교회 안에는 "프로그램"이라는 이름으로 종종 둔갑하여 사용되어지는 것들을 본다.

이러한 사용을 하나님의 "일방은 총"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세상의 것들로 둔갑시켜 버리는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것이다.

현대의 기독교상담자들이나 정신과 의사를 특히 기독교인이면서

정신과 의사인 사람들이 교회 안이나 기타 세미나 장소 혹은 개인적인 사역(가)을 통해서 "현상학적" 혹은 "병리학적" "임상적인"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한다. 하지만 이러한 단어는 교회 안에서 자주 사용할 수 있는 용어이거나 혹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사용하려고 하신 성경적인 언어는 결코 아니다.

교회 안에서 이러한 용어들을 사용하는 이들이 무슨 의도로 사용하는지는 모르지만 기독교상담자라고 하는 이들이 대부분 이러한 단어들을 사용 함으로서 자신들이 무슨 치료자(?) 혹은 병을 고치는 능력있는 의사나 되는 듯한 우월감에 빠져서 이러한 용어들을 사용하는지도 모른다.

용어의 구분이나 단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정의에 의해서 그 사람이 평가될 수는 없지만 그 용어가 주는 위양스에 따라서 그 용어를 사용하는 사람의 기본적인 생각을 읽을 수 있다.

교인들의 생활속에 나타나는 죄의 문제들과 거친 모습들 그리고 삶의 문제속에서 발생하는 대인관



글쓴이 김주원박사는 한국성경적상담자협회 대표로 사역하면서 미국 국제성경적상담자협회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Biblical Counselors, CO)의 한국멘토로 사역을 하고 있으며, ARM (Addicted to Recovery Ministries)의 한국대표로 섬기고 있다. 한국의 알코올 약물 등 각종 중독에 관련되어진 사역을 하면서 알코올 중독 전문사역교회 새움교회에서 젊은 이들과 함께 즐겁게 사역하고 있다. (010) 2252-2934

계의 문제들 혹은 옛 자기의 모습들을 [현상학] [병리학]적인 관점에서 접근을 하면 교인들이 모두 치료받아야 할 [환자]로 바뀌게 된다. 당연히 그러하다.

다음호 계속

대한예수교장로회 **대석교회**

축부활

담임 정재규 목사

서울시 금천구 시흥 4동 3-64번지
☎. 02)803-4549

삶을 변화시키는, 글로벌시대 인재양성 및 복음화를 위한

학기적인 말씀축복 [전도집중 말씀집중 독서집중] 특별집회

축부활

부흥회 + 전도집회 + 재직세미나 + 교사세미나 + 수련회 효과

집회특정

- 모든 전도 프로그램, 교회성장 프로그램에 남게를 달아줌.
- 말씀으로 무장할수 있어 성도들이 이단에 넘어가지 않음.
- 교회전반에 큰 활력을 받음(전도, 기도, 설교, 교육)
- 전도에 자신을 갖게 되며, 헌신, 충성의 사람으로 변화됨.

강사특정

- 확실한 동기부여
- 열정과 감동이 있음
- 삶의 희망과 확실한 믿음을 갖게 함

주관 : 말씀사랑운동본부
후원 : 지저스 타임즈
집회유치문의 : 041)904-0675
011-9119-7661 (직통)

말씀을 읽는 자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는 자는 실패하지 않는다.

축부활

말씀으로 양육되고 성장하는 **대광교회**로 오십시오!!

에배안내

예배	시간	장소	비고
새벽기도회	매일 새벽 5:30	본당	성경강해
주일 1부예배	주일 오전 7:30	본당	
주일 2부예배	주일 오전 10:00	본당	일일예배
주일 3부예배	주일 오전 11:30	본당	
주일 4부예배	주일 오후 2:00	본당	특별예배로 들을 수 있음
주일 5부예배	주일 오후 4:00	본당	청년예배
수요기도예배	수요일 오후 9:00	본당	청년기도회
각구역별예배	각 구역별 지정시간	각 구역별 요구기정	매월 마지막주는 연합예배

주일학교예배안내

부서별	시간	장소	대상
유치부	주일 오전 11:30	본당 지하 1교육관	취학전 아동
유년부	주일 오전 9:00	본당 지하 1교육관	초등학교 1-3학년
소년부	주일 오전 9:00	별관 교육관	초등학교 4-6학년
중등부	주일 오전 11:00	별관 교육관	중학생 및 동급연령
고등부	주일 오후 9:30	별관 교육관	고교생 및 동급연령
청년 2부	주일 오후 4:00	본당	19~24세 미혼
청년 1부	주일 오후 4:00	본당	25세이상 미혼

대한예수교장로회 **대광교회**
Presbyterian Church

451-061 안양시 동안구 관왕동 1409-10
TEL. 031-384-6826

축부활

서울예일신학 (사명자수시모집)

- 신학과 - 사명(은사)자 학력/나이제한없음
- 연구원 - 신학교 졸업자(남,녀 목사안수희망자)
- 사회복지학과(사회복지사 2급)
- 학점운영제, 학위과정(학사, 석사, 박사)운영

www.syeil.com
전 화 02)2293-0045
H · P 010-7405-9191

장기요양기관(행복의집)
가족처럼 어르신(환자)를 모십니다
(등급판정-1급-3급자환영)

www.1004tv.net
전화 033)541-0687, 010-7405-9191

사선을 넘어서...북한 1호 공훈배우 주순영선교사

[8화] 보위부로 이송 직전 풀려나 새벽 두만강 건너 중국으로

노동단련대에서 얼마나 지옥같은 생활을 지냈을까. 마침내 우리를 싣고 갈 기차가 들어왔다. 이제 체념하는 길밖에 없었다. 그런데 기적이 일어났다. 불법월경 범죄자 60여명이 이름이 불려진 가운데 단 한명, 내 이름만 없었다. "우리 부장 동지 잘 알아요?"

안전원 대위가 물었다.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라 머뭇거렸다.

"전직이요?"

나는 엉겁결에 '네'라고 대답했다. 그는 나를 데리고 안전부 부장 방으로 데리고 갔다. 그제서야 이해가 됐다. 얼마 전 부장과 면담했던 것이 주효했다. 그때 부장에게 안전부에서 보위부로 넘어가지 않게 해주면 중국에 가서 많은 돈을 보내주겠다고 약속했었다. 안전부는 한국의 경찰청에 해당하고, 보위부는 국가정보원에 해당한다.

"자, 나는 약속을 지켰소. 이제는 동무가 반드시 약속을 지켜야 하오."

지금 빨리 ○○○로 가면 기다리는 사람이 있을 터이니 그 사람을 통해 안내를 받으시오."

기적이었다. 너무나도 감사했다. 하나님께

감사기도를 드렸다. 참으로 희한한 일이었다. 극한 상황에서 잇따라 하나님께 감사기도할 일이 생기니 말이다.

두만강을 건너기로 했다. 부모님과 딸이 기다리는 고향으로 가볼까 생각도 해봤지만 스스로 죽음굴로 들어갈 수는 없었다. 두만강으로 가면서 명이라는 처녀를 알게 됐다. 우리 둘은 북한 초병의 묵인 속에 새벽 두시쯤 두만강을 건넜다. 무사히 강을 건너 젖은 겉옷을 짜고 있는데 두 명의 남자가 우리 쪽을 향해 달려오며 "썩빠 마라"고 외쳤다. 팔로만 들던 인신매매범들이었다.

명이라는 나쁜 놈이 팔을 얹었다. 머리를 바닥에 대고 썩빠도 하지 않았다. 한참 있다가 머리를 들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 바로 앞, 팔만 뻗으면 닿을 만한 곳에 두 남자가 버티고 서 있었다. 그리고 한 남자와 눈이 마주쳤다. 몸이 썩빠하게 얼어붙는 듯했다. 두 눈을 감았다. 심장 뛰는 소리와 두만강 물소리만 들렸다. 불과 몇 초가 지났을까, 저쪽에서 '부스탁' 소리가 났다. 두 남자는 "저쪽이다!" 하곤 정신없이 뛰어갔다.

또 다시 하나님께서 지켜주셨다. 진정 하나

님께서는 그 위기의 순간에 나와 명이를 지켜주셨다. 하나님께 서는 인신매매범들의 눈을 멀게 하셔서 우리를 지켜주셨다.

다시 중국 땅 연변으로 돌아왔다. 그러나 더 이상 머무를 수가 없었다. 인제 다시 붙잡힐지 모르는 중국 땅이 무섭고 싫었다. 앞길에 막막했다. 언젠가 한국에 간 탈북자가 라디오 인터뷰에서 한국행 부트가 중국 내용물 변경이라는 한 것을 떠올렸다. 명이라는 여인을 데리고 내용물로 항하기로 결정했다.

돈 1만5000위안과 옷가지 등 소지품을 챙겨 베이징행 열차에 올랐다. 열차 안에서 몇 차례 검문을 받을 때마다 가슴을 있는 대로 졸여야 했다. 기도, 기도, 그리고 기도... 마침내 열차는 베이징 역에 도착했다. 이번에는 더 무시무시한 검문이 우릴 기다리고 있었다. 수많은 컴퓨터, 그 안에 버티고 있는 공인들, 신분증 대조와 호주조사, 중국말 질문... 피해나갈 구멍이 없었다. 오름이 저러왔다.



주순영 선교사는 여러 차례의 체포와 두 차례의 목숨을 걸고 고난을 겪으면서 마침내 하나님께의 사랑을 체험하였다. 중국 도리성향 중 베이징에서 잠시 여유를 낸 주 선교사.

무엇보다 컴퓨터가 문제였다. 그 기계는 우리의 가장 신분증을 금세 들들나게 할 것이었다. 자연스럽게 나와 동생들은 손을 잡고 기도했다. 엄청난 인파 속에서 우리는 얼굴이 눈물로 뭉개어질 때까지 기도했다. 그런데 이게 웬 일인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다 나가고 경찰들도 온데간데 없이 없어졌다. 하나님께서 또 다시 우리의 긴급한 기도를 들어주셨다. 참으로 신기하였다. 간절히 기도하면 이루어지는 현상이 놀랍고도 재미있었다. 광야에서 구름과 불기둥으로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보살핌은 이후 내용물 행 열차에서도 그대로 이어져 꼬박 이틀을 걸려 내용물 열연(二連)에 도착했다.

보호김철대성 K군의 낮은 지존김

하나님 앞에 죄인이다"라고 실독을 했다. 이후 K군과 몇 차례 상담을 더해 나는 안정감을 갖게 하고, 죄책감에서 벗어나게 할 수 있게 됐다.

상담에서 대화는 언어적 수준과 정서적 수준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언어적 대화는 사회적으로 허용된 말들을 포함하며, 정서적 대화는 욕구를 만족시키는 수단으로 사용한다. 상담자들은 청소년들과의 대화에서 청소년 중심의 대화가 필요하며, 또 청소년을 신뢰하는 대화가 중요하다. 구체적으로 어떤 대화가 좋을지

하여 여인으로 하여금 호기심을 가지게 했다. 내담자에게 생수에 대한 호기심을 가지게 한 후, 상담의 본론으로 들어갔다. 즉 "네 남편을 데려오라.(16절)"고 요구하신 것이다. 5명의 남편이 있었던 이 여인이 도덕적으로 순결하지 못한 것을 알게 하여 우리 모두 죄인이라는 것을 깨우치게 한 것이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여인 스스로가 메시아를 기다리는 고백을 하게 한 후 "내게 말하는 내가 그로라 하시니

라"(26절)라고 자신을 나타낼 때, 여인은 구원의 확신을 가지게 된 것이다. 상담은 내담자의 입장에서 진행해야 성공할 수 있다.

상담은 상담자와 내담자가 만남에서 시작하여 만남 속에서 끝맺게 된다. 그러므로 상담자와 내담자가 좋은 관계를 형성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상담 관계 형성의 원리는 무조건적 존중이다.

속터지는 국민들

“국회는 누구를 위해 있는가”

국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지켜보는 국민들은 참담한 심정이 아닐 수 없다. 아이들도 아니고, 그렇다고 모리배라고 하기엔 국민으로서 자존심이 상하고, 무엇보다도 표현할 말조차 딱히 떠오르지 않는 막막한 심정이다. 그들이 의사당에서 국가(國歌)를 열창하고, 토론하는 모습을 기대하는 것이 잘못된인지, 그런 기대를 버려야 하는 것인지 모르겠다.

정녕 그들이 국민들에 의해서 세움을 받은 일꾼들이나? 그들이 국민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인지 조금이라도 그러한 느낌을 받고 있다. 엄청난 인파 속에서 우리는 얼굴이 눈물로 뭉개어질 때까지 기도했다. 그런데 이게 웬 일인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다 나가고 경찰들도 온데간데 없이 없어졌다. 하나님께서 또 다시 우리의 긴급한 기도를 들어주셨다. 참으로 신기하였다. 간절히 기도하면 이루어지는 현상이 놀랍고도 재미있었다. 광야에서 구름과 불기둥으로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보살핌은 이후 내용물 행 열차에서도 그대로 이어져 꼬박 이틀을 걸려 내용물 열연(二連)에 도착했다.

싸우는 모습도 가관이다. 어찌 그렇게 아이들 수준을 넘지 못하니지 부끄럽지 않을 수 없다. 아이들이 자라면서 국회가 싸우는 것을 보면서 무엇을 생각할지, 그저 마음이 저릴 뿐이다. 한 사람씩 살펴보면 참으로 귀한 사람들도 있고, 나름대로 큰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 그들이라고 생각하니 더 참담하다. 의원 개인의 입장이 있고 정당의 입장이 있을 것이다. 국회도 정당의 의원들 모두 국민을 전제로 존재함을 잊고서는 안 될 것이다. 국민들은 국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서 허탈감과 분노마저 느끼고 있다.

그럼에도 여전히 서로서로 상대 정당만 탓하고 있다. 상대를 제거해야 산다는 극단적인 입장을 가지고 밥을 제정한다는 것은 오히려 상대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 아닌가. 그러나 밀리면 죽는다는 심리적인 압박이 대화하고 양보할 수 없게 하는 것이리라.

국회는 가장 성숙한 의회정치의 장이어야 한다. 법을 제정하고 정부를 감독하는 일에 있어서 국민을 위해서 자신들에게 주어진 권리와 의무를 통해서 그 직무를 감당해야 한다. 그럼에도 오늘날 국회에서 전해지는 모습은 서로를 향해선 욕설을 퍼붓고 난장판인 채로다. 그럴 시간이었으면, 더 연구하

고, 더 이야기 하고, 더 머리를 맞대면, 조금 더 나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법안심의는 대중이고, 쟁점에 대해서만 서로 격돌하는 모습은 누구도 공감할 수 없는 일이다. 아무리 그것이 국민을 위한 것이라고 강변할지라도, 그러한 모습은 결코 국민들이 자랑스러워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진정 국민을 위한다면, 우선 국민의 마음이 편안함과 그들을 자랑스럽게 할 만큼 성숙하고 진지한 모습으로 국민을 위해서 머리를 맞대야 한다. 차분하게 서로 다른 입장을 나누고, 논리적으로 설득을 하고, 동의를 구하는 인내가 필요하다. 의회정치란 일방적인 것일 수 없다. 인제나서로의 입장을 확인하고, 최대공약수 내지는 공통분모를 찾아가는 것이다. 그러한 모습을 국민들이 본다면, 평안을 느끼고, 그들을 자랑스럽게 여길 것이다.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협력이다. 협력은 정당을 넘어서 국가적 차원의 국민을 위한 대협력이어야 한다. 그러면 당리당락에 매이는 정당은 존재 의미가 없다는 것을 확인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그러한 기대를 할 수 없을 만큼 철저하게 금배지와 당리당락에 매어있음을 부장할 수 없을 것 같다. 의원들은 자신의 금배지를 위한 일이 아니라, 골치 아픈 사안에 관심조차 보이지 않는다.

의원들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나름의 사정도 있을 것이고, 밖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것도 없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국민은 그들이 국민을 위해서 고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느끼고 싶어 한다. 싸우더라도 국민이 그 중심에 있기를 원한다. 그러나 현실은 국민을 방자하고 있으나, 장작 그 속을 살펴보면 거기에는 국민은 없거나 뒷전에 있을 뿐이다.

그러나 있으나 마나 한 국회 아닌가. 그렇다고 정부의 체제와 구조를 부정할 수는 없는 일이니 답답할 뿐이다. 그래서 이리, 저리 뉴스에 국회의 모습이 보이지 않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야 하는 심정은 슬프기마져 하다. 정녕 그들은 누구를 위한 사람들인가? 그들에게 꼭 물어보고 싶다.

예수님의 상담원리 ④ 내담자 중심



백석문화대학
조영원 교수
(본지 논설위원)

K군은 보호감찰 대상으로 G사회복지관에서 봉사활동을 하는 고교 중퇴생이다. 친구들과 어울려 폭행을 했기 때문에 경찰서에 다녀온 후 심한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었다.

K군: 너무 불안해요. 사람들이 나보고 손가락질하는 느낌이 들어요. 앞으로 아무리 잘한다 고해도 별이 하나 붙었으니 내 인생은 끝난 거죠. 나 같은 사람 밥 먹어 뭐 합니까? 어디를 가도 나는 전과자인데...

상담자: 한마디로 "나쁜 놈"이라는 거지요? 무슨 큰 잘못을 했는데 전과자가 된거지요?

K군: 잘못이라기보다 오해가 있었던 거지요. 나는 한 대 밖에 때리지 않았는데... 상담자: 그래요. 그런데 왜 그렇게 자신을 나쁘게 생각합니까? K군: 물론 작은 일이지. 그러나 경찰서에 다녀왔다는 건 내 스스로가 받아들이 수 없어요.

나는 이런 죄책감에 불안해하는 K군에게 "누구나 자기 인생에 오점이나 결점이 전혀 없을 수는 없다. 결점이 있는 것이 인간이고, 앞뒤가 뒤러는 안 맞는 것이 인간이다. 인간은 다

첫째, 성격에 대해서보다는 행동에 대해서 말하라. 둘째, 평가하지 말고 서로 의견 교환하라. 셋째, 충고보다는 대안을 제시하라. 넷째, 자유로운 제안은 하지만 강요하지 말라. 다섯째, 화가 나더라도 부드럽게 말하라.

청소년들에게 필요한 것은 간섭과 통제 가 아닌 그들 편에서 서서 스스로 선택하고, 추구하게 하는 삶의 모습을 정서적으로 지원하고 격려해 주는 너그러움과 따뜻함이다.

성경 요한복음(4:1-42절)에 사마리아의 수가라는 동네에서 물을 길러 우물가에 나온 여인에게 접근하여 상담을 통해 구원을 받게 한 이야기가 있다.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물을 달라."(7절)는 말로 접촉을 시도했다. 상담은 내담자의 입장을 먼저 생각하여 접촉해야 한다. 그 다음 예수님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다."(14절)고 말

합동총신대원 학위수여식 가져



2008학년도 합동총회 신학대학·대학원(총장 조광선 박사) 학위수여식을 2월 26일 오후 2시 서울시 중로구 중로 3

가 장사동 156-1 소재 분교강당에서 가졌다. 이날 류한성 교수 사회로 진행된 졸업식 1부 예배에 박준교 교수가 기도, 오부설 교수가 성경 살전 5:18절을 봉독하고, 총신성가대

원의 찬양이 있었으며, 총장 조광선 박사는 "감사하자"는 제하의 말씀을 선포했다. 합동총회 신학교는 이날 대학부 29명, 대학원 23명 등에게 학위를 수여했다.

The Jesus Times
www.JTNTV.kr
인터넷 신문 방송

제10회 총신졸업예배 및 학위수여식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신학교학장 류광수 박사대강당에서 제10회 졸업예배 및 학위수여식을 지난2월 25(수)일 오전 11시 경기도 이천시 호법면 배곡리 소재에서 이사장 김동권 박사 사회로 1부 예배가 진행되고, 신양·고백에 이어 증경총회장 김인수 목사사기기도, 부총회장 강태웅 목사사 성경봉독을, 학장 류광수 박사가 "나를 버리는 날"제하의 말씀을 선포했다.

2부 학생처장 강은중 박사가 사회로 졸업식이 시작되고 교무처장 이길근 박사가학사보고를, 학장 류광수 박사는 전도사 과정 졸업 16명, 신학과정 학위 73명, 사모과정 학위 29명, 연구원 과정 학위 77명 각각 등에게 졸업장과 학위를 수여하고, 목회대학원장 박지은 박사는 목회대학원 과정 학위를 3명에게 수여했다. 이날전도협회이사장 최정웅 박사가 축사를, 총회장 정인금박사가축도에 나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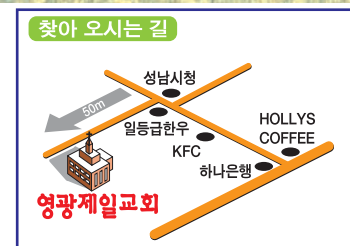
외 보리! 영광제일교회로...

축 부 활

매일 밤마다 8시 기도회
매주 목요일 낮 2시
특별찬양지유

▶특별찬양: 김명희 ▶드림: 손정철 ▶피아노: 김윤미

예배 시간 안내	
주 일 낮 예 배	오전 11시
주 일 오후 예 배	오후 2시
수 요 예 배	오후 7시 30분
목요찬양치유집회	오후 2시
금 요 예 배	오후 8시
학 생 예 배 (토)	오후 5시
새벽기도회(매일)	오전 5시
8시기도회(매일)	오후 8시



지금 전화 한통화로 인생이 바뀝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461-192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태평2동 3422(교회)
Tel. 031-756-9826(교회) Mobile. 010-8200-7791

신학생·목회자·사명자 영성학교 오픈 준비중
교회부설 토요공부방(초·중·고) 및 약기지도(무료-토요일)
피아노, 드럼, 플루트 문의: 010-6677-6886

성남시민을 위한 무료 재정상담 세미나!

강의 내용
- 소득지출로 보는 우리가정
- 위험관리(보험알고 가입하자)
- 세금절약예적금: 편이해하기
- 돈에 시달리지 않는 가정을 위한 재무설계

강사 프로필
- 포도재무설계 상담원
- 한림성심대학 제2대 세미나
- 네이퍼테크 상담원
- 네이퍼전문가 클럽리스트
- MBC 생방송 화제집중 부채클리닉 출연

보건복지부와 함께하는 포도재무설계서울지점 상담원 양기원
영광제일교회에서 무료 세미나 수강 가능합니다. 상담원 양기원
주말과 휴일은 상담이 불가능합니다. 상담시간: 매월 1회
상담처: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1-1 영광제일교회

세미나 참석 신청: 010-6677-6886
☎ 031-756-9826
세미나 6월 1시 30분까지 접수합니다

축 부 활 2009년 3, 4월 피종진 목사 국내·외 성회 일정



피종진 목사

3월 집회

1(주일)오후 안양 월탄한글교회(그레이스리 목사) ☎011-254-0599
1(주일)저녁 춘천 신성감리교회(김창수 목사) ☎033-252-4494
2(월)오후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이재범 목사) ☎010-4004-5688
2(월)-4(수) 인천 송도주사랑교회(장성일 목사) ☎031-851-9191
5(목)저녁 인천 갈매길교회(이정환 목사) ☎010-3721-4316
6(금)오후 한영신학교(이정환 목사) ☎02-2067-4511
6(금)오후 여의도대지교회와 정소여의도순복음교회(이정환 목사)전교편
6(금)-8(주) 제15차 해외성회(151st Overseas Assembly) ☎213-251-9191
9(월)-12(목) 미국(U.S.A)평화교회(김은목 목사) ☎033-252-4494
13(금)-15(주) 미국(U.S.A)세상의소망교회(문성원 목사) ☎714-527-8887
17(화)오전 국제총회신학교(이정환 목사) ☎031-968-9191
17(화)저녁 (이사장 박명순 목사, 학장 피종진 목사)
18(수)-20(금) 서울 목동교회(김일준 목사) ☎061-242-6401
20(금)오후 국제총회신학교(이정환 목사) ☎054-421-5221
21(토)오전 한영신학교(이정환 목사) ☎02-2067-4511
21(토)오후 부산 침례교회(이정환 목사) ☎010-8376-2476
22(주)오후 서울 별말교회(이정환 목사) ☎02-2690-7450
22(주)-24(화) 서울 침사랑교회(이정환 목사) ☎016-413-5368
22(주)-24(화) 대전 중앙장로교회(정준소 목사) ☎010-6470-6117
26(목)오후 서울 소망교회(이정환 목사) ☎02-9663-7777
26(목)철야 평화의동산교회(피종진 목사) ☎041-852-2211
27(금)오후 오산리교회(이정환 목사) ☎031-947-0091

27(금)-28(토) 부산 TSTV(바이블센터) (이사장 피종진 목사, 사장 이종문 목사) ☎010-8269-7700
29(주)오후 부산 행복교회(이정환 목사) ☎011-9066-9859
30(월)-31(화) 대만(Taiwan)이러니언 연합성회
4(월)집회 1(수)-2(목) 대만(Taiwan)나동지역 연합성회
3(금)-3(토) 대만(Taiwan)화천지역 연합성회 ☎02-980-4728
6(월)오후 서울 미아교회(정태현 목사)총회신학교 ☎02-2683-4202
6(월)-9(목) 서울 강남생수교회(이정환 목사) ☎011-270-7105
9(목)-11(토) 서울 수정성교회(이정환 목사) ☎02-2067-4511
10(금)오후 한국부흥사회의(대표회장 정민철 목사) ☎010-3224-2345
12(주)오후 상주시 기독교 부활절연합예배(대표회장 김용진 목사) 상주 실내체육관 ☎031-431-4817
13(월)-15(수) 시흥 소망교회(이정환 목사) ☎02-9663-7777
16(목)오후 서울 소망교회(이정환 목사) ☎02-9663-7777
16(목)-17(금) 청원 아세아연합신학대학원(총회장 고세진 박사)CPRC 강의
23(목)-25(토) 부산 JUSTV 라이브센터
(이사장 피종진 목사, 사장 이종문 목사) ☎010-8269-7700
27(월)오후 전주 강림수향관(이정환 목사) ☎063-221-6792
28(화)오후 애장(합동) 전국 목회자 세미나
정소: 평화의동산교회(이정환 목사) ☎041-852-2211
속초 시인교회(문종복 목사) ☎052-270-1004
주최: 한국 노동교회 전국 EXPO대회 (대표회장 문종복 목사, 본부장 최원수 장로)
29(수)-5,1(금) 일본(JAPAN) 고토성교회(류봉호 목사) ☎0907-105-9000

대한예수교장로회 남서울중앙교회

서울시 강남구 개포동 186번지 E-mail:holyspirit7777@gmail.com
교 회: (02)3411-9191, FAX: (02)3411-9111
목사관: 010-5255-7777, FAX: (02)401-7770

17세에 앓은병이 돼, 35년 만에(52세)일어나 걸어 귀먹고 소경된 80대 노인, 듣고 보는 치유의 현장

한국부흥사협의회(이하~한부협, 대표회장 이며, 대전열방선교센터)정민철 목사는 한부협 주최로 열린 대전집회에 정바울 목사(광주 방주축복교회)를 강사로 초청 지난 2월 9일~13일 새벽 6시까지 말씀찬양치유집회가 열렸다. 9일 밤 집회에 말씀과 찬양으로 마음이 뜨겁게 열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놀랍게 체험하는 장이 되었다. 늦은 밤 2부 치유집회가 시작되고 병들고 고독당하고 있는 환우들에게 강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안수를 한다. 이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다.

이들 머리의 부축을 받아 참석한 80대 노인은 강사로부터 강하고 뜨겁게 안수를 받는 순간, 들리지 아니한 귀가 열리고 앓을 볼 수 없었던 눈이 열렸다. 집회에 참석한 모든 이들이 기립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박수가 터지며 할렐루야를 외친다. 노인은 아들 머리와 대화를 하며, 눈으로 보면서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였다.

하나님의 기적은 계속 되었다. 대전광역시 법동에 산다는 손상용 준목(강도사)은 17세에 소아마비로 인해 양쪽하반신을 쓰지 못하고 35년을 살아 왔다. 52세가 된 지금껏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하고 목발을 의족삼아 왔다. 그는 집회에 참석은 했지만 사실은 반신반의하는 마음이었다. 하지만 80대 노인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눈과 귀가 열리는 기적을 바라보고 자신도 걸을 수 있다는 믿음이 솟구친다.

그 때 강사의 손이 머리와 다리에 얹어져서 기도가 시작되었다. 믿음을 가지고 주어 믿습니다 하고 안수를 받는데 양쪽 다리에 힘이 생기고 펴보지 못한 다리가 부드럽게 진동이 일어나면서 퍼졌다. 이때 강사는 일어나 걸으라 하자 아멘하고 의족 없이 일어나 한발자국 두발자국 걷기 시작하고 또 한번의 박수갈채가 쏟아졌으며, 손 강도사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 드리며 하나님의 은혜로 35년 만에 땅을 밟아 본다며 하나님 앞에 감사를 돌렸다.

4월에 목사 임직을 앞두고 있는 그는 인터뷰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의 역사로 일어나 감개 하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나 자신보다 어려운 불쌍한 이들을 위하고,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기에 영혼 구원을 위하여 일하는 것만이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에 조금이나마 보답하며 사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목회할 개척지는 대전 법동이며, 준비 중에 있습니다. 라고 했다.

또한 눈과 귀가 열려서 대화가 되고 가족을 알아보는 노인은 너무 너무 기쁘고 좋아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라며 가족들과의 대화가 계속 이어졌으며, 집회가 끝나는 마지막 날까지 가족들과 함께 집회에 참석했다.

이날 정바울 목사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린다고 말하고 많은 목사와 성도들이 참석한 집회에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축복이라고 했다. 또한 21세기에 초대교회처럼 사도행전에 나타난 신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고, 중국을 비롯 미국, 태국 등 많은 나라에서

도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며, 자신은 오직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일 뿐이라고 겸손함을 보였다.

한국부흥사협의회 대표회장 정민철 목사(대전열방선교센터)는 집회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엄청난 역사가 일어났다. 지금까지 국내외적으로 유명한 많은 부흥사를 초청 집회를 가졌지만 이처럼 초대교회와 같이 성령의 불의 역사와 조유의 기적이 일어난 적은 그리 많지 않았다. 이는 그 누구도 흉내 낼 수 없는 엄청난 기적이기에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린다고 말하고 너무나 큰 감격에 젖어 더 이상 말을 잊지 못했다.

또한 한부협 부총재 장창윤 목사는 대표회



▲1차 귀가 열리고 2차 눈이 열린 노인의 모습



장 정민철 목사, 정바울 목사와 함께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의 기적을 보면서 앞으로 전국 대도시 전주 집회가 예정되어 있고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인천, 춘천 등지에서 집회가 계속 이어진다고 밝혔다.

축
부
활

대한예수교장로회 방주축복교회 (영암)방주축복수양관



담임 정 바울 목사 약력

- 해외 선교사
- 경희대학교 교육학과
- 고려대학교 대학원
- 총회신학대학원
- 총신대학교 목회대학원
- U.S.A BET대학교 목회학석사
- 동대학 선교학박사
- 세계영성부흥사 협의회 회장
- 해외 영성회복 부흥사협의회 해외대표회장
- 총회부흥사협의회(웨신) 연수원장
- 세계치유선교협의회 대표회장
- (사)국제밀알선교회협회 총재
- (사)고려학술원 이사
- JTNTV방송 지저스타임즈 부이사장

대표전화 062)941-7337 / 010-3913-7277
주소: 광주광역시 광산구 도산동 1146-21(2층)

주보는 교회의 얼굴! 우리교회 주보, 우리가 만들어요!!!

컬러디지털(주보)복합기



COLOR 203/200
■ 분당 컬러, 흑백 20매 고출력
■ 8가지 기능을 1대로 OK
■ RADF, 팩스, 피니셔는 옵션

세계최초, 최대 1m20cm 출력



COLOR 252/352
■ 분당 컬러, 흑백 25/35매 고출력
■ 8가지 기능을 1대로 OK
■ RADF, 팩스, 피니셔는 옵션

특별할인가

₩1,199,000
↓
₩790,000



매직칼라 2490MF

- 살아있는 생생한 컬러 색감
 - 2400×600dpi의 인쇄 / 복사 해상도
 - 정밀하고 선명한 인쇄 품질의 simitri 토너
 - 편리하고 경제적인 솔루션
 - 저렴한 유지비(4,500매 고용량 토너)
 - 흑백20매, 컬러5매의 분당 인쇄속도
 - 월 권장 출력량 35,000매의 튼튼한 구성
 - PC없이 직접 사진 출력
 - FAX 기본기능
- 편리하고 경제적인 솔루션
- 네트워크 기반의 다양한 기능
- 다이렉트 포토 프린트

전자용 디지털 주보인쇄기



DP-3217P

- 분당 50~180매의 초고속 인쇄
- 반 영구적인 뛰어난 내구성
- 고효율, 저비용(1장 1원에 도전)
- 고해상도 사진/문자 인쇄
- PC 인터페이스 기본 장착



PC형 인터페이스 기본 장착

접지기 · 중철기



중철제본 & 접지기

- B5~A3까지 중철제본 · 접지1장 이상
- 주보, 교재, 책자 등 20매 80페이지 가능



주보접지기

- 2, 3, 4단 주보 한번에 접지 접하는 간격 조절 가능 분당 120매 접지

(주)영광기업 대표이사 정학영 장로
010-5779-0691



주보 인쇄기 보급 5,000대, 전자용 디지털 컬러 주보 복합기 1000대 기록 달성! 영광기업을 사랑해주신 교회와 목사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8가지 기능을 한대로!
■ 모든 부서 인쇄물을 단 한대로 ok!

www.jubo114.com



주식회사 영광기업
Glory Enterprise Co., Ltd.

종로전시장
서울시 종로구 효제동 51-3(100주년기념관 옆)
Tel. 02)762-8572 Fax. 02)764-5883

전국 어디서나
1588-0691

본사
서울시 양천구 신원동 547-9 영광빌딩
Tel. 02)2065-1004 Fax. 02)2065-1005